

Sulwhasoo

VOL.81 SEPTEMBER/OCTOBER 2017

VOL.81

Sulwhasoo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7



공기 air / 김규태
백자 위에 동적유 / 20×20cm 이내

불의 흐름이 아름다운 흔적을 만든다. 장작 가마 안에서 백자는 꽃처럼 붉게 피어나는 생명력을 담고 진사백자辰砂白瓷로 환생한다. 진사백자 특유의 화려한 붉은색은 진사 안료인 산화동산화銅의 환원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가마 불의 분위기에 따라서 동적유(진사유)의 요변窯變(가마 속에서 변화가 생겨 구워낸 도자기가 예기치 않은 색깔과 상태를 나타내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우연성은 진사백자의 특징이자 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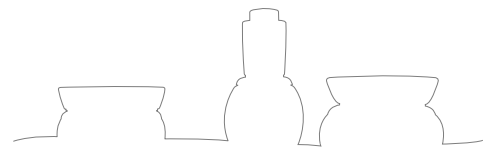
김규태 작가는 이러한 진사백자의 절묘함을 현대의 감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조형미가 돋보이는 형태에 적색과 백색의 조화를 더해 진사백자를 새롭게 재해석한다. 작업 과정이 까다롭고 어려운 전통 제작 기법을 계승하되, 그만의 시각으로 다듬어진 진사백자는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다. 예로부터 붉은색은 상서로운 기운을 의미했고, 붉은색을 띤 진사백자는 귀하게 여겨졌다. 현대에도 그 고귀한 기운이 전해진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The flow of fire leaves beautiful impressions. White porcelain is renewed as a Jinsa white porcelain with a vitality that blooms as red as a flower in the firewood kiln. The bright red of the Jinsa white porcelain is the result of the reduction of oxidized bronze, which is a Jinsa pigment. The fire in the kiln evokes an astonishing transformation (unexpected development of color and condition or shaping of porcelain due to a change in the kiln) of bronze oil (Jinsa oil), and this incident has become a distinguishing feature and beauty of the Jinsa white porcelain.

Artist Kyutae Kim addresses the beauty of Jinsa white porcelain with modern senses. He also mentions that the harmonious combination of the red and white colors and the beautiful shapes produce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Jinsa white porcelain. He has become successful in using the meticulous and time-consuming traditional process and refining the porcelain with his own perspective of contemporary beauty. From ancient times, red has represented an auspicious energy and the reddish Jinsa white porcelain has been considered as valuable heritage. As a result, its precious energy is still being handed down today.

설화수 헤리티지에 빛나는 인삼의 강인한 에너지
자음생 라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강화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힘을 키워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합니다. 자음생 라인으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이 실현됩니다.

The new and improved ginseng essence fortifies
the skin's natural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ies to replenish vitality.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realizes true anti-aging effects.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7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고려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까지 전 세계 11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7,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1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U.S. and Canada, as the Asian beauty creator.

Sulwhasoo

VOL.81 SEPTEMBER/OCTOBER 2017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자연에서 가져온 치유의 힘
- 12
피부 섬기기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이 피부를 감싸다
- 16
新 장인을 만나다
잘 만든 그릇
- 22
공간미감
책의 도시에게 지혜를 묻다
- 28
건너다
다채로운 문화 속에 매력으로 다가서는 설화수

발행일 : 2017년 9월 1일(통권 제81호)
발행인 : 심상배 편집인 : 이우동
발행처 :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 : 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 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 : 윤연숙, 민소연 디자인 : 조윤희
사진 :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 덕일 인쇄 :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공기보다 따뜻한 빛으로, 빛보다 진한 향기로
나의 노래여, 소향
- 44
어우러지다
생활과 예술의 경계에 탐닉하다
- 50
설화풍경
성곽 길에서 만난 가을의 정취
- 54
설화보감
가을의 영양을 짓다, 솔밥
- 60
아름다운 기행
치앙마이 & 시드니
- 66
설화수를 말하다
탄탄하게 빛나고 활력으로 찬란하다
- 72
설화공간
11년 간 한국의 전통문화 알려온
설화수 문화메세나, 〈설화문화전〉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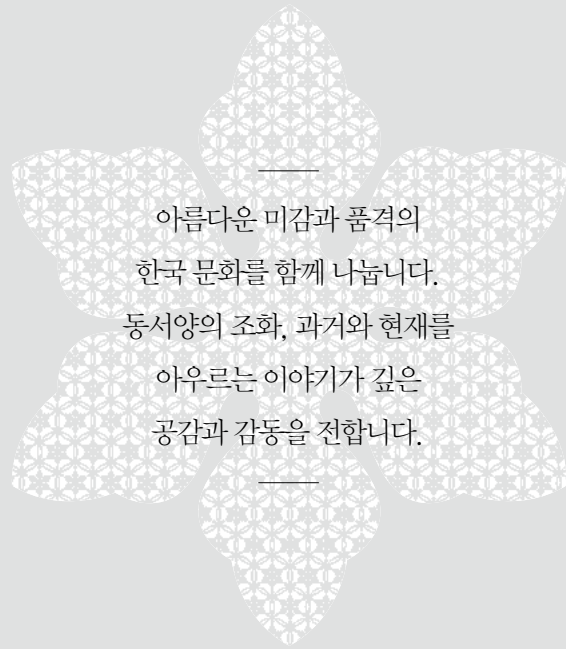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한 땀 한 땀, 장인 못지않은 이 마음
- 82
한국의 멋
섬섬옥수 위에서 빛나다
- 84
설화애장
변화하는 것들의 얼굴
- 86
읽다
패션, 예술을 담고 닦다
- 90
집 안 단장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빛
- 92
몸 단장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자연에서 가져온 치유의 힘 The healing power of nature

계절이 바뀌면서 닥치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피부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는다. 여름내 뜨거운 열에, 차갑고 건조한 에어컨 바람에 고생한 피부가 부쩍 피로함을 하소연하는 요즘 자연에서 온 건강한 재료로 트러블을 다독이고 맑은 안색을 찾는 방법을 알아본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피부 문제를 치유하는 오래된 재료들이 전해진다. 그중 누구나 구하기 쉽고 효과가 탁월한 것이 소금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염탕'이라고 일컫는 소금물 요법이 자주 등장한다. "얼굴에 생긴 온갖 색의 부스럼을 치료한다. 따뜻한 소금물을 적신 헝겊으로 부스럼을 눌러준다. 하루에 대여섯 번 하면 저절로 낫는다.", "가려움증에 소금만 한 것이 없다. 따뜻하게 해서 세 번 목욕한다. 해수욕이 더욱 묘한 효과가 있다.", "소금물을 따뜻하게 해 멍울이나 독이 오른 부기를 씻어준다. 두세 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을 보면 소금이 가려움증이나 부스럼 등의 트러블, 멍울이나 부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인의 고질병인 아토피에도 소금 요법이 도움 된다. 소금 목욕은 깨끗한 물을 팔팔 끓여 체온 정도로 식힌 다음, 소금을 풀어 얼굴과 두피, 전신까지 씻어낸다. 섬유의 결이 살아 있는 삼베로 마사지하면 모세혈관을 자극해 효과적이다. 소금은 피부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삼투압 작용으로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게 한다. 피지샘을 막지 않으

There are traditional materials known for healing skin problems. Sal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asily found and most effective ingredient for such purpose. <Dongui Bogam> often mentions a salt water therapy called 'Yeastang'. "It heals all kinds of boil on the face. Soak a clean cloth in warm salt water and gently press it onto the boil. Repeat this process up to 6 times a day in order to heal the skin." "Nothing is as effective as salt when it comes to itchiness. Take warm salt water baths three times a day. Bathing in seawater is even more effective." "Wash lumps or swollen areas with warm salt water. It is best to repeat this two to three times." All of this information shows that salt is effective for skin problems, such as itchiness, boil, lumps, or swelling. Salt therapy is particularly helpful for atopic skin. For salt bath, bring a pot of clean water to a boil. Cool it down to body temperature in order to dissolve the salt, and then wash your face, skin, and whole body. It is effective when massaged with a rough hemp cloth, as this can stimulate the capillary vessels. Salt activates



크림 톤의 도자기 접시는 정소영식기장 면치기된 작은 백자 합은 김벌희 작가.

면서 피지를 적절히 분비하게 해 피부 결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소량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를 탄탄하고 생기 있게 한다. 특히 소금 팩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여 주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 한 스푼을 깨끗하게 세안한 물기 있는 얼굴에 부드럽게 발라 10분 정도 둔 다음, 소금이 마르면 찬물로 헹궈낸다. 소금을 바를 때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며, 헹구기 직전에 스팀 타월로 얼굴을 감싸주면 더욱 좋다.

그 밖에 <동의보감>에 실린 피부의 외용 단방들을 살펴보면, 자연으로부터 와 일상에서도 구하기 어렵지 않은 재료들이 주로 쓰였다. 이를테면 부스럼에는 도화를 가루 내어 물에 타서 복용하고, 노화로 생긴 주름을 없애려 밤껍질을 꿀에 개어 발랐다. 또한 옛 여인들은 수세미와 박, 오이, 당귀, 복숭아 잎, 유자 등의 식물을 이용해 직접 미안수를 만들어 썼다. 이 식물들은 피부의 열과 독을 풀어주고 미백 기능이 탁월해 한약재로도 널리 쓰인다. 물론 상류층이 향유한 귀한 재료들도 있었다. 장미꽃을 증류해 얻은 귀한 액체는 귀족 사이에서 화장수로 사용했으며, 진주는 뺨아서 모유와 섞어 발라 기미와 반점을 없앴다.

자연에서, 그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던 오랜 지혜는 여전히 지금의 우리를 자극하고 깨우친다. 인위적인 편리함에 지쳐가는 피부를 위해, 자연의 힘을 빌려볼 때다. S

the skin's original function and discharges unnecessary impurities via osmosis. It allows healthy sebum secretion without blocking the sebaceous glands for a refined skin texture. In addition, a small amount of minerals can deeply penetrate the skin for a firmer and more supple looking skin. Salt mask enhances the skin's metabolism. Smooth a spoonful of natural salt rich in minerals onto wet face after a thorough cleansing and leave it on for about 10 minutes. When the salt has dried on the skin, rinse with cool water. Keep the salt away from the eyes and wrap the face with a hot towel right before rinsing for best results.

Other solutions for the skin that were mentioned in <Dongui Bogam> also used materials that were easily found in nature. For example, peach blossoms were ground and mixed with water as a drink for the treatment of boil, while chestnut shells were mixed with honey and applied on the skin to correct wrinkles caused by aging. Furthermore, traditional women used a combination of water and plants (e.g., Luffa cylindrica, gourd, cucumbers, Angelica gigas, peach leaves, and yuzu) to create their own skincare treatment. These plants are widely used in traditional medicine, as they remove toxins from the skin and produce exceptional whitening results. There were also precious materials enjoyed by the upper class people. The rare liquid acquired by distilling roses were used as a toner among the nobility, while the pearls were ground and mixed with milk in order to remove age spots and other skin discolorations.

The traditional wisdom in finding ways to stay healthy and beautiful by using nature in its most natural state still stimulates us today. It is time to borrow the power of nature to bring back life to your tired looking skin.



카키 컬러의 옷칠 등 종지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분청 찻잔은 윤세호 작가.
다크 그레이 컬러 도자기 종지는 정소영의 식기장. 도자기 미니 저그는 김남희 작가.
타원형의 마스터드 컬러 옷칠 트레이와 민트 컬러 우드 옷칠 도시락은 모두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이 피부를 감싸다 Powerful vitality of ginseng embraces the skin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의 비결은 바로 인삼의 힘. 설화수의 인삼 헤리티지가 오롯이 담긴 자음생크림과 특별한 마스크 안티에이징을 선사할 자음생마스크. 인삼의 힘이 닿는 순간 피부는 생동한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한방에는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담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다. 지혜가 담긴 수많은 한방 원료 중에서도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뛰어난 효능을 자랑한다. 이 '고려인삼의 신비한 효능을 어떻게 하면 피부에 이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설화수 한방 연구의 역사. 설화수는 1966년, 설화수의 모태인 ABC 인삼크림으로부터 출발하여 50여 년 넘게 진세노믹스™(Gin-senomics™)를 통해 인삼을 연구하고 있다. 진세노믹스™는 부위별 인삼 연구, 가공 기술, 재배 등 인삼이 가진 신비로운 힘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인삼에 숨겨진 피부 효능을 밝혀내는 설화수 인삼 연구의 정수다. 설화수의 인삼 연구는 피부 안티에이징에 효능을 발휘하는 '컴파운드 K(Compound K)를 찾아내었고, 나아가 이를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인삼 가공 기술(특히 기술)인 바이오컨버전기술™을 통해 인삼의 힘을 피부에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피부 노화를 케어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 설화수는 인삼 에너지를 피부에 오롯이 전달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안티에이징을 이루어냈다.

Korean Herbal Medicine reflects the Korean ancestors' wisdom to capture nature's vitality. Among the many Korean herbal medicinal ingredients, Goryeo Ginseng has been known to be exceptionally effective. The history of Sulwhasoo's study of Korean Herbal Medicine began by asking, "How could we make the skin benefit from the amazing efficacies of Goryeo Ginseng?" Since 1966 with ABC Ginseng Cream, Sulwhasoo has studied ginseng through Ginsenomics™ for more than 50 years. Ginsenomics™ is the essence of Sulwhasoo's study of ginseng that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miraculous power of ginseng, including all the essential parts of ginseng, the processing technology, and the cultivation involved, to discover the skincare efficacies hidden inside. Sulwhasoo's study on ginseng led to the discovery of the skin anti-aging 'Compound K,' which delivers the power of ginseng directly to the skin through Bioconversion Technology™, the patented ginseng technology that processes ginseng to ensure effective penetration. The key factors for anti-aging are the skin's natural vitality and defense capacity. Sulwhasoo has realized anti-aging technology that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y delivering the energy of ginseng for the skin to restore and defend itself.



서울의 지도를 단순화한 비정형
오각형의 대리석 서울 트레이는 모두
김현주 스튜디오 by 챔더원



황금색 알루미늄과 톤 다운된 유리의 조화가 돋보이는 랩핑 하우스닥터 by 마요, 나무 소재의 작은 화병은 박수이 작가.

자음생마스크(9월 출시)

풍부하게 담아낸 자음생크림의 핵심 성분을 혁신적인 더블 랩핑 시트™ (Double Wrapping Sheet™)가 피부에 촘촘히 전달해 탄탄하고 우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18gX5매

* 14p 사진 속 제품은 자음생마스크 1회분 (상단 마스크 1매+하단 마스크 1매)

자음생크림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는 자생력과 방어력이 감소하면서 피부 노화 증상이 가속된다. 설화수의 인삼 헤리티지로 빛은 자음생크림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높여 피부 활력을 선사한다. 인삼 에너지의 근원인 인삼 뿌리에서 찾은 컴파운드 K와 인삼 생명력의 모체인 인삼 꽃에서 찾은 강화된 진세노사이드 Re 성분이 강력한 안티에이징의 길로 인도한다. 설화수 인삼 헤리티지에 놀라운 혁신을 더해 새롭게 출시된 자음생마스크는 자음생크림의 강력한 인삼 에너지를 풍부하게 담아낸 제품이다. 혁신적인 이중 구조의 더블 랩핑 시트™(Double Wrapping sheet™)가 핏이 다른 밀착력과 흡수력, 쉽게 묻어나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하고, 설화수의 노하우로 완성한 풍부한 크리미 텍스처는 내용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끈적임 없이 촉촉한 산뜻한 영양 케어를 선사한다. 집중적인 피부 개선이나 확실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할 때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 활력을 경험할 수 있다. S

As you age, your skin loses the regenerating and defense capacity to accelerate the symptoms of aging.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formulated with Sulwhasoo's ginseng heritage, enhances the skin's capacity to restore and defend to boost its vitality. Compound K, found in the roots of ginseng which is the source of ginseng's energy, and the improved ginsenoside, Re, from the ginseng blossoms, the source of vitality, lead to the path of powerful anti-aging.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y Mask, the new product released by adding astonishing innovation to Sulwhasoo's ginseng heritage, is a product rich in the powerful ginseng energy of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The innovative double-layered Double Wrapping Sheet™ achieves unmatched adherence, penetration, and comfort that is free of migration, and the rich, creamy texture, perfected through Sulwhasoo's research, does not slide, allowing refreshingly moisturizing nourishment without being sticky. When you need intensive skin refinement or special care for visible results, you should be able to experience the vitality of skin that is firm and radiant.

자음생마스크 사용법
How to us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y Mask

*주 2회, 에센스 사용 후 크림 단계에서 사용 권장함
*Recommended to use twice a week after applying serum.

Step 1

하단 마스크가 담긴 트레이를 열어 마스크를 꺼내어 뒷면의 필름을 조심스럽게 벗겨낸다.
Open the tray containing the lower part of the mask and carefully remove the film from the back side of the mask.

Step 2

하단 마스크의 위쪽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필름을 벗긴 쪽을 입 부위에 맞춘 후 얼굴에 맞게 붙인다.
Hold the upper end of the lower mask and apply the filmless side on the face aligning with mouth.

Step 3

상단 마스크가 담긴 트레이에서 마스크를 꺼내어 뒷면의 필름을 벗겨낸 후, 윗부분(이마 부위)을 손으로 잡고 필름을 벗긴 쪽을 눈, 코, 이마 부위에 맞춰 얼굴에 붙인다.
Open the tray containing the upper mask and remove the film from the back side of the mask. Hold the upper end of the upper part of the mask and apply the filmless side on the face aligning with eyes, nose, and forehead.

Step 4

마스크가 고르게 밀착되도록 볼, 이마, 팔자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고, 가장자리 부분은 잘 펴서 붙인다. 20분 후 마스크를 떼어내고 남은 유액을 부드럽게 물리하고 두드려 흡수시킨다.
Lightly press areas around cheek, forehead, and smile line to smooth out any creases. Leave on for 20 minutes, then remove the mask and gently massage in any remaining residue.



잘 만든 그릇

Kim kyutae

도예가 김규태

오로지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조형적 변화를 시도하면서 스스로가 그을 금을 넘지 않으며 사는 도예가.
 한 달에 한 번 플라마켓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일을 일상의 소박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그릇을 잘 만들고 싶다."는 평범을 넘어서 절실함과 단호함이 섞인 한마디를 토해냈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붉은빛이 도는 작품들이 많은데, 먼저 진사辰砂 기법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동銅으로 색을 내는 기법인데, 환원되면 붉은색이, 산화되면 초록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기법이긴 하지만, 간혹 붉은 열매를 표현하기 위해 쓰였던 제한적인 기법이라 사용 빈도는 낮았죠.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게 색을 내기 어려웠던 탓에 진사를 '유리홍釉裏紅'이란 이름으로 부른 중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에는 이 기법에 대해 들은 바도 배운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진사 기법에 몰두하게 되신 건가요?

일본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진사 기법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번 도전해서 저만의 색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오브제 같은 설치 작업을 주로 했는데, 도예 본연의 작업 형태로 돌아오게 된 시점에 진사를 알게 되었지요. 진사가 제

Many artworks appear red. Can you please explain about the Jinsa method? Simply put, the Jinsa method creates color with bronze because it appears red when reduced and green when oxidized. It has been handed down since the Goryeo Dynasty, but it has rarely been used as it is only used to create red frui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create an aesthetically beautiful color, it seems that it was not popular in China, either. I never heard of or learned about it back when we were in school.

How did you come to focus on this Jinsa method? I found out that some people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Jinsa method in Japan and wanted to try it to create my own color. Before that I mostly worked with installations of objects, but I learned about Jinsa when I returned to porcelain. Jinsa does not define all of my work, but it is a method I actively use.

작업 전체를 규정짓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었습니다.

기법을 작품에 적용하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의 공예 기술을 습득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도예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 가마 안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지요. 동일한 데이터를 적용해 작업해도, 기압(氣壓)이라든가 가마 안에서의 산소의 흐름 같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 요인으로 인해 결과물이 달라지니까요. 고작해야 10~20퍼센트의 낮은 성공률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도예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혹 예상치 않은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의도하지 않은 성공에는 결코 쾌감이 없습니다.

지난해 '공기와 '사과'를 테마로 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은 전시회였나요?

크게 보면 최근 제 작업의 두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제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도, 그 안에 무엇이 담기든 그전에 담기는 것은 공기, 즉 텅 빈 허공일 뿐이죠. 또 내용물을 털어내면 그릇은 언제라도 원래의 모습, 공기를 담은 텅 빈 공간을 만들게 되죠. 그런 생각을 표현한 것이 <주전자> 시리즈입니다.

한 작가의 작품에는 시기별로 흐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자연스러운 변화와 의도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전시회와 거리를 두고 작업에만 몰두하는 이유도 스스로 변화를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음, 저에게 일어난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 다면체의 머그잔을 만들어왔는데, 타인의 눈에는 그저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지겠지만, 저는 참 많이 달라진 구석을 발견하곤 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순 없으나 깊이감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할까요.

I believe that you faced many difficulties in creating pieces until you actually applied the method. It actually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to learn a craft technique and apply it satisfactorily. Porcelain work is particularly difficult because of the process in the kiln, which is beyond the reach of artists. The outcome is determin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e almost impossible to predict or control such as the pressure or the flow of oxygen in the kiln even when you apply the same data. The porcelain artist can only rely on fate with only a 10% to 20% success rate. You may come across quality outcomes very rarely, but such an unintended success yields no pleasure at all.

You held a solo show focused on 'air' and apples' last year.

What was its message? My latest work has two major flows. A vessel is created to contain something. Even when I mold clay to create a vessel, however, air is what fills it before an object occupies a vessel. The vessel creates an empty space filled with air anytime when the object is removed. This idea is expressed by my <Kettle> series.

An artist's work often has a flow by era. How do you think your flow has changed? There must have been natural changes and intended changes. I have concentrated on creative work away from exhibitions this year because I want some change myself. Well, this must be a natural change for me. I have created polygonal mugs since a decade ago and I find that they have changed a lot although they might appear similar to others. I cannot explain everything in words, but there is a greater depth, so to speak.

Personally, I loved the shape of the rectangular kettle and the contrast of colors created by edges that looked somewhat worn. There were rectangular or hexagonal shapes created by us-



동의 환원과 산화에 따라 붉은색과 청색을 띠는 진사백자. 자연스러운 색 변화의 흐름이 아름다운 흔적을 만든다.



덩어리를 빚은 후 면을 깎아내어 기형을 만드는 김규태 작가. 면의 비율과 비례에 주목한 그의 작품은 담백한 절제미가 돋보인다.

개인적으로, 사각 면 주전자의 기형과 마치 마모된 듯한 모서리가 연출하는 색감의 대비가 좋습니다.

흙을 나무틀에 넣어서 제작한 사각이나 육면체 같은 기형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덩어리를 빚어 칼을 이용해 안팎을 깎아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두께를 맞추는 일이 쉽지 않지만 면의 비율과 비례에 대해 주목하면서 작업합니다. 사실 주된 고민은 진사의 색감보다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면체의 모서리는 유약이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백토가 드러나 만들어진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플라마켓에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아트숍 유통 같은 생활자기의 기존 판매 방식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근처에 사는 작가들과 의기투합해 2015년부터 참여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차례 열리는 장터에서 사람들과 격의 없이 만나는 일이 단조로운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전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그릇을 만들면 그만이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알게 되는 등의 소득도 있죠. 간혹 이런저런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작업을 하셔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릇을 잘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작품이 아니라 굳이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조만간 전시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사과> 시리즈를 내놓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작품의 크기를 한껏 키워봐라, 금을 사용해봐라 하는 등의 권유를 하곤 하는데, 도자기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면 응축된 힘을 잃겠다는 생각이 들어, 밀도 있는 작업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뭔가 달라지고 싶다는 다짐의 금을 긋고 살지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꿈이 있긴 합니다.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작가분들을 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재능을 소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S

ing wooden molds back in the Joseon Dynasty, but I use knives to carve the inside and outside of lumps instead. It is difficult to make the thickness consistent, but I focus on the ratio and proportion of planes as I carve. In fact, my major concern is this process rather than the colors of Jinsa. The edges of polygons appear so because the white clay is revealed as the lacquer slides down.

I heard that you participate in local flea markets. I learned about the flea markets while I was honestly skeptical about the existing way of selling everyday porcelain through art shops. I have joined artists living nearby in participating in flea markets since 2015. Casually meeting with people at the monthly markets is a little thing, but it is a great source of energy. Before I did nothing more than make vessels in the sizes that I wanted, but now I know the sizes that consumers want. They sometimes ask me to make certain shapes of vessels.

You should continue to work for a long time. What are your plans? I want to create good vessels. I am calling them vessels instead of artworks because I believe that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 am going to put on a show soon and I would probably exhibit my <Apple> series. People suggest I should increase the size of my work or try gold for a change, but I am planning to focus on more detailed processes because I don't want to lose power by losing the original shape of porcelain. I am determined to make some kind of change, but I am planning to pursue a change within a frame that is comprehensible to me. I do have a dream if I look farther into the future. I sometimes meet artists who are in their prime even though they are already old. I want to live a life where I don't consume my talent at an early age.



책의 도시에게 지혜를 묻다 Forest of Wisdom, Jijihyang

파주 지혜의 숲, 지지향

“책읽기는 영혼을 놀라게 한다. 책읽기는 자신의 내부에 등록된 모국어,
그곳에서 속삭여지며 의식의 형태로 감시하는 반향 효과를 흐트러뜨린다. 책읽기는 사고의 시공을 확장시킨다.”
-파스칼 키냐르, <은밀한 생> 중에서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한다. 지루한 열기가 이내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덥다고 미뤄두었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기 좋은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도 하기 좋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다. 짧은 여행은 어떨까? 사색이나 명상에도 이 서늘한 공기가 더없이 훌륭할 것 같다. 파주에 있는 '지혜의 숲'과 '지지향'은 위 모든 계획에 꼭 맞춤형한 듯 알맞다.

고개를 들면 탁 트인 풍경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과 20여만 권의 책이 가득한 공간. 언젠가 헛되이 꿈꿔 보았던 으리으리한 개인 서재를 닮은 것도 같다. '지혜의 숲'은 365일 내내,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하는 독서 공간이다.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인 가치 있는 책들을 모아 공공의 서재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인, 단체, 출판사, 도서 유통사 등 수많은 곳으로부터 온 책들이 숲을 이루었다. 누군가의 서가에 있었던 해묵은 화집을 꺼내어 펼쳐보았다. 낡은 표지와 달리 쏟아질 듯 화려한 색감의 도판이 그 존 재감을 드러낸다.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손때 묻은 페이지에 문득 애뜻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공감의 순간들.

이곳 '지혜의 숲'은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래 매월 3만 명이 방문하는, 출판도시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독서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체험 공간으로도 제 구실을 하고 있다. 책이 만들어지는 현장으로서 출판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살려 입주한 출판사와 함께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나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위치한 '지혜의 숲'은 가치 있는 책을 한데 모아 보존, 보호하고 관리하며 함께 보는 공동의 서재다.
2 기증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인문학 도서를 만날 수 있다.

People say that fall is the season for reading. As the tiring heat of summer is blown away by the cool breeze, it is good to start reading again. If you think about it, this is a wonderful season for you to do anything. How about taking a short trip? The cool air would be great for daydreaming or meditation. 'The Forest of Wisdom' and 'Jijihyang' in Paju are suitable for all of these plans.

A space with a big window looking out to an open view and holding nearly 200,000 books will somehow remind you of a wealthy man's study that you might have seen in your dream. 'The Forest of Wisdom' is a reading room opened for 24 hours to the public for free, all year round. It was created as a public study with valuable books that were nearly disposed once. The forest of books has been donated by many individuals, organizations, publishers, and distributors. I opened an old book of paintings that was once in someone else's study. What I found inside were colorful paintings that seemed to spill out bright hues, which were unlike the old covering of the book. Since its opening in 2014, 'The Forest of Wisdom' has grown into the center of this Book City and it has been visited by approximately 30,000 people each month. It is fulfilling its role as a space for people to read and hold various cultural programs. There are different humanities lectures, book concerts, and special lectures for children co-programmed with the publishers

북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특강 등이 다채롭게 이어진다. 이에 관련한 정보는 출판도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pajubookcit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혜의 숲'에서 나가 다른 모험을 하고 싶다면, 파주 출판도시의 개성 넘치는 건축물 사이로 산책을 추천한다. 그 건물들 안에선 많은 이들이 세상에 곧 태어날 새로운 책을 만들며 고군분투하고 있겠지만, 거리는 고즈넉한 침묵에 젖어 있다.

'지혜의 숲'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가 모자라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 독서와 사색의 느긋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지혜의 숲'과 이어진 '지지향紙之郷'에서 하루쯤 묵어도 좋겠다.

'중이의 고향'이라는 그 이름대로 종이 향 가득한 호텔로,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나뭇결이 느껴지는 편안한 목재 인테리어는 더할 것 없이 간결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또한 엄선된 작가들의 작품과 흔적을 느껴볼 수 있는 5층 '작가의 방'은 특별한 문학적 경험을 안겨준다.

소란하고 분주한 도시의 삶에 지친 마음은,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없는 소박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쉬고 온전히 회복할 것이다.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놀라게 하고 시공을 확장시키는 책 한 권. '지혜의 숲' 혹은 '지지향'은 그 소중한 발견을 가능케 한다. S

in town by taking advantage of the potentials of Book City.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Book City Culture Foundation website (www.pajubookcity.org).

If you want to step out of 'The Forest of Wisdom' for a different adventure, I recommend a walk among the unique architectural structures of Paju Book City. Many people must be struggling with difficulty to create new books within each of those structures; however, the streets are taking pleasure in the silence.

A day is not enough to fully explore 'The Forest of Wisdom'. If you want to take some time to enjoy reading and meditation, you might want to stay overnight at 'Jijihyang', which is connected to 'The Forest of Wisdom' within the Asia Publi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This is a hotel filled with the scent of paper, as its name means the hometown of paper, and it offers a special place for guests to relax. The cozy space filled with wood materials delivers the ultimate minimalist beauty. On the 5th floor, you will find the 'Writer's Room', where you can enjoy carefully selected pieces and the imprints of renowned writers for a unique literary experience. If you ever feel exhausted from the extremely noisy and active city life, you will be able to take a rest and fully recover in this humble space with no TV or computer. A book can awaken your spirit and expand your time and space. 'The Forest of Wisdom' or 'Jijihyang' can make all of this possible.

지혜의 숲,
지지향 가는 길

자유로 → 통일동산 방향 일산대교 기점
7km 지점에 위치한 장월IC에서 파주출판
도시 진입로 표지판을 보고 들어간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화동길 145

문의 지혜의 숲 031-955-0082

지지향 031-955-0090



1 지지향 객실의 목재 인테리어와 면 소재의 침구류는 자연의 편안함을 전한다. 2, 4 습관적으로 켜게 되는 TV 대신 좋은 책이 비치되어 있어, 진정한 사유와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3 어린이 책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아이들에게 즐겁고 자유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다채로운 문화 속에 매력으로 다가서는 설화수 Sulwhasoo, a charm for diverse culture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문화유산,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레이시아.
다민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화 속에서 설화수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비전을 들여다본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셔터스톡





살아있는 문화유산과 다양한 브랜드가 모여 있는 대형 쇼핑몰이 공존하는 도시 쿠알라룸푸르.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흥미로운 곳

아시아와 유럽, 중동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 종교 등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말레이시아.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과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골목이 있는가 하면 고층 빌딩과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자리한 쇼핑몰이 현대적인 화려함을 뽐내기도 한다. 동남아에서 제일 높은 키나발루산과 원시의 모습을 간직한 맹그로브 숲에서는 때 묻지 않은 대자연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코타키나발루와 랑카위 등의 휴양지에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눈부시게 펼쳐지고, 해질 무렵이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석양이 그림 같은 풍광을 자아낸다. 또 다민족 국가인 만큼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식도락의 즐거움도 함께한다. 특히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는 동남아 최대 관광 도시로 불리는 만큼 유수의 호텔과 초대형 쇼핑몰, 근사한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또 거대한 식물원과 공원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 심어진 많은 나무들과 고층 빌딩의 조화는 잘 가꾸어진 정원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An interesting place with a more interesting future

Malaysia is a charming place with diverse people, languages, and religions from Asia, Europe, and the Middle East. There are streets cherishing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s, while other streets boast of the modern glamour of skyscrapers and malls with multinational brands. You can discover the purity of Mother Nature on Mt. Kinabalu, the highest mountain in Southeast Asia, and the primitive jungle of mangrove and vacation resorts in Kota Kinabalu and Langkawi present the splendor of emerald-colored seas and the picture-perfect view of sunset that changes every minute. As a multicultural nation, Malaysia enjoys a wide variety of tastes of food from around the world for relatively affordable prices.

Kuala Lumpur, the capital city, is one of the best tourist destinations in Southeast Asia with major hotels, mega-sized shopping malls, and beautiful restaurants. The vast botanical garden and parks and trees throughout the city harmonize with the skyscrapers, displaying a view of a well-organized garde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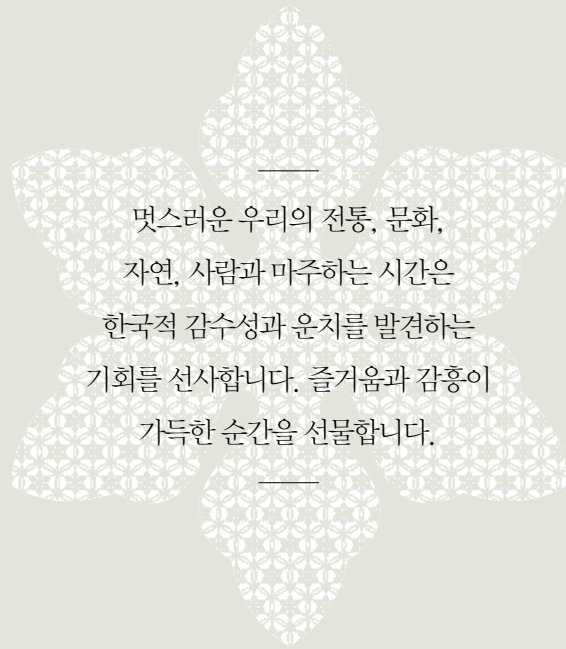
말레이시아가 사랑하는 뷰티 브랜드, 설화수

아시아의 코스모폴리탄이 모여드는 곳, 쿠알라룸푸르. 여느 동남아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무더운 날씨 특성상 크고 작은 몰(Mall)이 많다. 말레이시아 3대 쇼핑몰 중 하나인 선웨이 피라미드(Sunway Pyramid)는 스텍스와 피라미드를 본떠 만든 외관이 독특한 복합 쇼핑몰로서 호텔, 리조트, 스파, 테마파크 등이 모여 있어 유명 관광지이자 쇼핑의 랜드마크로 불린다. 이곳 선웨이 피라미드에 설화수는 2016년 12월 말레이시아의 1호 로드숍을 열었다. 설화수 말레이시아 로드숍에서는 설화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스터 바가 갖춰져 있으며 설화수의 대표 원료가 전시되어 현지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로드숍 전용 제품을 판매하고, 올 3월부터는 페이스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설화수는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11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현지 고객들과 만나고 있다. 설화수만의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여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다가서고 있다. S

2016년 12월 문을 연 설화수 말레이시아 로드숍. 다양한 테스터 바와 페이스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으로 현지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Sulwhasoo, a beauty brand that Malaysia adores

Kuala Lumpur, the place that attracts Asia's cosmopolitans. There are many malls of various sizes in Kuala Lumpur because of its hot and humid climate, as with many other Southeast Asian cities. Sunway Pyramid, one of the three major shopping malls in Malaysia, is a shopping complex with a unique appearance that resembles the Sphinx and the Pyramid. It is a renowned landmark for tourists and shoppers offering a hotel, resort, spa, and theme park. Sulwhasoo opened its first Road Shop in Malaysia here at Sunway Pyramid in December 2016. Sulwhasoo Road Shop Malaysia offers various tester bars for Sulwhasoo products and also exhibits Sulwhasoo's major substances for the local customers to enjoy. It sells exclusive Road Shop products for Sulwhasoo's unmatched brand experience. The facial treatment services introduced last March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and enthusiasm. Sulwhasoo started business in Malaysia back in 2013 and currently operates 10 stores in addition to the Road Shop. It is reaching out to get closer to the local customers with Sulwhasoo's incomparable brand value.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뭇
갈



공기보다 따뜻한 빛으로, 빛보다 진한 향기로
나의 노래여

With the light warmer than air and the scent
richer than light - My songs

Sohyang

소 향

대뜸 이름의 뜻을 물었다. 이상하게 그게 참 궁금했다. '소향'이라는 이름은 발음할 때마다 소리와 공기와 빛의 질감이 따라오는 듯했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음성을 들으면 따뜻한 빛으로 가득한 진공의 상태에 놓인 기분이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시원스레 웃으며 그가 답했다.

"빛날 소에 누릴 향이에요."

글 이재영 진행 윤연숙 사진 전재호





사람은 이름대로 간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궁이 되기도 한다. 무대 위에서 소향은 목소리만으로 빛을 뿜어낸다. 그의 반짝이는 소리는 입자가 고운 공기에 섞여 들는 이의 마음속으로 입장한다.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 소리는 환한 불빛으로 켜지기도 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보석으로 박혀 빛난다. 얼굴을 가리고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6주 연속 가왕 타이틀을 지켰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처음에는 섭외 요청을 고사했다.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을 가리고 노래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영광스럽지만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슬럼프에 빠졌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첫 무대로 도전하듯 응하게 됐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몸이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 목소리에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목소리 하나가 재산이었는데 전 재산을 잃은 느낌이었죠. 하던 대로 노래도 잘하곤 했는데 저만 알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그는 무작정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잠깐 듣는 것만으로 황홀한 우리들이야 눈치채지 못할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20년을 노래해온 지난 역사를 정리할 생각이 들 만큼 중대한 일이었다. 열아홉에 마이크를 잡은 후 지금까지 노래는 소향의 거의 모든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그렇다고 커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꿀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학창시절 장기자랑 시간에 반 아이들이 ‘소향이 노래 시켜요.’ 하면 나가서 부르는 정도. 제가 조금 달랐던 건 노래로 놀았다는 것이었을까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3대 디바가 세상의 주목을 받던 그때, 학생 김소향은 그들의 앨범을 1000번씩 들었다.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Sohyang shines with just her voice on the stage. Her sparking sound mixes with the fine particles of the air to enter the hearts of listeners. The sound lights up brightly in some people's hearts and shines as a timeless gemstone in others'. She has proven herself by staying on top as the Queen of Singing for six consecutive weeks on <Mask Singer>, the singing contest where the singers sing behind masks. In fact, she refused to be on the show at first.

“I wasn't sure whether I could sing wearing a mask. It sounded impossible to sing with your mouth covered. I was honored, but I couldn't accept the proposal without hesitation.” Then she fell into a slump and decided to challenge the show to overcome the slump.

“I felt weak and ill, so I lost confidence in my voice. My voice was all I had and I felt I lost everything. I continued to sing well, but I faced a limit that only I could feel.” She bought a flight ticket to New York without a plan. It was a small change that none of us could have noticed as we were always mesmerized by her singing, but it was a major event for her that she thought about quitting 20 years of career as a singer. Singing has been almost everything for Sohyang since she first held a microphone as a singer at the age of 19.

“I always liked singing and I was good at it. But I didn't dream of becoming a singer. I just sang in front of the class when my classmates asked me to sing for them for the talent show. What was probably different about me was that I played while singing.” Whitney Houston, Mariah

“정말 재미있었어요. 매일 앉아서 똑같은 노래를 듣는데 들을 때마다 달랐거든요. 어느 날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어느 날은 기타 라인이나 베이스 라인을 따라 해보고, 또 어떤 날은 코러스를 따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래 공부가 됐고요. 무명의 CCM 가수로 <나는 가수다> 무대에 오를 때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을 고른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대중들에게 알려진 히트곡 하나 없는 제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곡 중 하나였거든요. 그 가수들의 앨범이 제 스승이에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인 CCM을 시작한 이후 지금의 소향이 되기까지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일이 노래였다. 그런데 그 재미가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무작정 뉴욕에 가 지인 맥에서 한 달을 머물렀어요. 어느 날 필라델피아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남긴 한마디가 써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 글귀를 보고 문득 ‘아!’ 하고 깨달았어요. 나중에 무서워서 지금 내 앞에 놓인 노래를 피한다면 나는 훗날 더 큰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내 앞에 놓인 노래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다시 <복면가왕>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고, 그는 드디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6주 동안 곡을 고르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이 녹록하지 않았다. 힘들고 고달팠다.

“그래도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진짜 대중들과의 소통이 뭔지, 나에게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노래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거든요.” 힘을 빼는 것, 내려놓는 것. 꼭 온몸에 불끈 힘을 주는 것만이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예전만큼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관객에게 편안하게 다가간 듯했다. 관객과의 소통이 무엇

Carrey, and Celine Dion. When the three renowned divas captured the world, Sohyang Kim listened to their albums 1,000 times each as a student. She never got tired of them.

“It was really fun. I listened to the same songs every day, but they sounded different each time I listened to them. The albums of those singers were my teachers.” Singing has always been fun and interesting since she started singing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But the idea that she might lose that fun made her scared.

“I went to New York and stayed at a friend’s house for a month. I took a trip to Philadelphia one day and I read a statement of President Roosevel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At that moment, I was enlightened. I would regret more in the future if I avoid singing now just because I fear the future. I decided to accept my life as a singer and try my best again.” When she returned to Korea after a month, <Mask Singer> contacted her again and she was able to come out of the slump. It was not easy to choose the right songs and practice for 6 weeks, of course. It was hard and tiring.

“But it was the right decision. I was able to ponder and study how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what singing means to me, and how to sing and deliver my songs.” To loosen up and to let it go. She learned that filling her entire body with energy is not the only way to do her best.

“My single album will be released soon and I tried to sing it a little comfortably. I’m not saying





인지, 노래가 전달할 수 있는 파장이 얼마나 다양한 빛깔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곧 싱글 앨범이 나올 텐데 이 앨범은 좀 편안하게 불렀어요. 지르는 게 창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틱한 창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감정선을 건드려주는 부분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이번엔 색다른 소향의 목소리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꿈이 여러 개 있다. 우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하는 일들 모두 온 감각이 짜릿할 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었다. 얼마 전 헝가리에 초대돼 세계수영선수권 폐막식에서 노래를 하고, NBA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는 등 세계를 돌며 한국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도, CCM 가수로 활동하는 것도, 대중들과 호흡하며 노래하는 것도 모두 재미있지 않다면 못했을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뜻밖의 일을 했는데 바로 판타지 소설을 쓴 것이다. <아낙사이온>이라는 10권의 판타지 소설을 완성했는데,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의 또 다른 꿈은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노래가 어디 높은 곳에 가서 홀로 앉아 있지 않았으면 한다. 자유롭게 가볍게 떠돌았으면, 가슴 아픈 이들을 외투처럼 감싸주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주고, 하루를 버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그리하여 그 안에 조화롭게 섞였으면. 공기처럼, 빛처럼 따스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렸으면. 빛날 소, 누릴 향. 소향이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제 마지막 꿈은 <설화수> 독자들보다 다르지 않아요. 균형 잡힌 마음으로 세상에 조화롭게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S

that my shouting style is not bad. Some people like that dramatic style and it can touch some people. But with this style I can present the different voice of Sohyang to them.”

She has several dreams. First, she wants to do what is fun. What she has done as a grown-up have all been intriguingly fun and enjoyable. Everything special she has done was fun, like being invited to Hungary to sing 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World Championships, singing the American Anthem for the NBA games to introduce the voice of Korea around the world, singing as the CCM singer, and interacting with the public as a singer. She has also done a rather surprising thing. She has written a fantasy novel. She has completed a fantasy novel series of 10 books titled <Anaxion>. Her other dream is to live a harmonious life, so her songs do not sit lonely at a high place. She wants them to wander around liberally and lightly. She wants them to hug those who are hurt, be a wall of support for those who are tired, and be a spark of small happiness for those who struggle to survive. She wants her songs to live harmoniously among them as air and light that everyone can enjoy. As her names means ‘enjoy the light,’ she wants to share the light with everything.

“My last dream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Sulwhasoo> readers. I want to live harmoniously with the world with a balanced mind. I want to live harmoniously with everything in existence.”

메이크업 강미(순수 02-515-5575) 헤어 서영 스타일리스트 윤경 도움 주신 곳 LIE SANGBONG(02-553-3314), 미센스(02-6116-2137), 뉘앙스(02-2113-6420), SOA(070-7869-6259), 이로스타일(1644-1591)

생활과 예술의 경계에 탐닉하다

때로는 편안한 휴식처로, 때로는 집 안의 아름다운 오브제가 되어주는 디자인 체어. 미학적인 형태와 예술적인 감성, 기능성을 겸비한 디자인 체어가 일상의 격을 높인다. 우아한 곡선과 섬세한 직선의 만남이 공간으로 스며든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수작업으로 만든 브라스 받침의 호두나무 사이드 테이블은 Sollos by 철타원 2 매트한 그레이 컬러의 도자기 화병은 이가진 작가 3 연한 핑크 컬러 도자기 컵은 지승민의 공기 4 6블루 컬러 Love Seat 체어와 오렌지 컬러 체어는 모두 Gispen 제품으로 AUTUM 5 체크무늬 패턴의 체어는 AUTUM, 7 와인 컬러 패브릭 VUELTA 암체어는 WITTMANN by 보에





아름다운 균형감이 주는 편안함

인락함은 물론 스타일도 갖춘 싱글 체어와 임체어는 의자 하나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거실의 품격을 높인다.
컬러풀한 체어는 공간의 포인트가 되고 벨벳이나 가죽 소재의 체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침대 한쪽에 플로어 스탠드와 함께 두면 거실과는 또 다른 아늑함을 전한다.



왼쪽 페이지 1 치분한 인상을 주는 캔버스 그림은 고지영 작가 by 이목화랑. 2 원목 오크 다리에 파스텔 핑크 컬러 패브릭 시트로 구성된 Liza 임체어는 자노타. 3 머스터드 컬러 울칠 원형 테이블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4 매트한 소재의 연한 그레이 컬러 잔 세트는 이가진 작가. 5 빈티지한 황동 전등갓과 곡선 파이프 라인의 테이블 램프는 객종범 작가. **오른쪽 페이지** 1 도자기로 만든 울칠 펜던트 조명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2 그레이 컬러와 대리석 상판이 조합된 모던한 디자인의 DD 테이블은 WITTMANN by 보에. 3 인체공학 기반의 기능적 부분과 디자인 모드를 만족시키는 아테나 임체어는 Frans Schrofer by 보칸센. 4 붉은 톤의 터키 빈티지 카펫은 덴스크.



왼쪽 페이지 1 고급스러운 느낌의 430 체어는 VERPAN by 보에 2 세 개의 플레이트가 레이어드된 디자인 테이블은 블랙딩 메이커 스튜디오 3 매트한 소재의 도자기 컵, 화병, 볼은 모두 이가진 작가 4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컬러 다이닝 체어는 SIBAST by 덴스크 **오른쪽 페이지** 1, 5 부드러운 파스텔컬러의 미니멀리즘 스툴은 모두 황주란 작가 2 팔각 기둥 형태의 비대칭 그린 마블 스툴은 Martino Gamper by 첩터원 3 매트한 소재의 연한 그레이 컬러 컵은 이가진 작가 4 반달 모양의 그린 컬러 스툴은 최경주 디자이너와 권의현 작가의 합작으로 아티스트프루프 6 나무로 깎은 새 오브제는 앙웅걸 작가

평범 속의 비범, 작지만 일상적인 디자인의 힘

감각적인 등반이 디자인과 소재, 컬러로 입맛 돋우는 다이닝룸을 만들어주는 다이닝 체어는 미리 정해진 테이블의 형태와 소재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스툴은 단독으로도, 짝이 아닌 의자들과도 잘 어울린다. 의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휴대성과 보관이 용이해 스툴을 잘 활용하면 한층 스타일리시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





성곽 길에서 만난 가을의 정취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품은 서울 성곽. 18.5킬로미터의 도심 속 트레킹 코스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서울을 발견하게 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계절의 정취가 그윽한 곳으로 순성(巡城) 놀이 떠나볼까.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토크 이미지

성곽 길 곳곳,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성곽. 자연 지형과 어우러진 성곽도시였던 조선의 수도 한양을 지키는 최후 경계선이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성곽 길을 따라 굽이굽이 걷다 보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동시에 서울의 비경을 마주하게 된다.

걷고, 사색하고, 감흥을 느끼다

햇볕이 보드랍게 무르익는 가을의 문턱에서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단풍 아래 아름다운 성곽 길
이 길을 따라 걷고 사색하는 시간은 평온함을 안겨준다. 다비드 르 브르통(David Le Breton)의 <걷기 예찬>에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고 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순간, 그렇게 된다.



강인한 아름다움, 부드러운 품격, 내외면의 조화로움

독보적 처방으로 완성된 '정양단'과 '인삼 추출물'이 피부 재생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피부 노화의 징후를
총체적으로 케어한다. 워터 젤 타입으로 스킨을 겸용해 사용할 수 있으며 솔향, 침향, 백단향을 바탕으로 한 깊고 풍부한 우디향이
지친 피부에 여유와 안정감을 선사해준다. 본윤에센스 140ml, 인삼씨 오일 성분이 짙고 힘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영양감 넘치는 풍부한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오랫동안 깊은 촉촉함을
선사한다. 본윤에센스와 마찬가지로 모던한 남성미의 우디향이 편안함을 전한다. 본윤크림 40ml





가을의 영양을 짓다, 솔밥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밥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뚜껑을 열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내 살짝 누른 밥과 영양 가득한 고명을 섞어 한 수저
열린 떠 입안에 넣어본다. 여름내 잃어버렸던 기운이 한 숟가락 위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어르신 의 기운을 돋우는
전복과 더덕 솔밥

재료

전복 1개, 더덕 한 뿌리, 쌀 2/3컵

만드는 법

1 전복은 깨끗이 씻어 손질해놓고 더덕은 씻은 후 얇게 채썬다. 2 씻은 쌀은 채에 밟쳐 30분 정도
둔다. 쌀을 불리는 과정으로, 밥을 했을 때 물에 담가 불리는 것보다 한결 고슬고슬해진다.
3 솥에 불린 쌀과 물 1컵을 넣고 강한 가스불에서 끓인다. 끓어오르면 주걱으로 저어준 후 손질한
전복과 더덕을 넣고, 중간불보다 약하게 줄인 불에서 뚜껑을 닫고 15분 정도 더 끓여 낸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행복한
버섯과 닭고기술밥

재료

쌀 2/3컵, 만가닥버섯 50g, 새송이버섯 30g, 표고버섯 20g, 닭가슴살 한 덩어리

만드는 법

1 버섯들은 끝을 다듬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2 닭가슴살은 통째로 한 번 삶아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는다. 3 솥에 30분 정도 불린 쌀과 물을 넣고 끓인다. 끓어오르면 주걱으로 한 번 저어준 후, 손질한 버섯과 닭가슴살을 넣고 중간불보다 약하게 줄인 불에서 15분 정도 끓여 낸다.



혼밥이어도 좋은
은행, 밤 그리고 대추솔밥

재료

쌀 2/3컵, 밤 2~3톨, 은행 5톨, 대추 2알, 식용유 약간

만드는 법

1 은행은 소금물에 삶아 껍질을 벗긴 후 기름에 볶는다. 이렇게 하면 밥이 기름져진다.
2 껍질을 깎은 밤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대추도 씨를 뺀 후 자른다. 3 30분 정도 불린 쌀과 물을 솥에 넣고, 손질한 은행과 밤, 대추를 함께 넣고 끓인다. 딱딱한 식감의 재료들은 처음부터 쌀과 함께 끓여준다. 4 끓어오르면 주걱으로 저은 후, 불을 줄여 15분 정도 더 뜸을 들인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고구마와 마솔밥

재료

쌀 2/3컵, 고구마 1/2개, 마 30g

만드는 법

1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껍질째 깨끗이 씻어 녹말 기를 빼준다. 2 마는 씻은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는다. 3 30분 정도 불린 쌀에 물을 붓고 위에 고구마와 마를 올려 강한 불에서 끓인다. 4 밥이 끓어오르면 재료들이 부서지지 않도록 주걱으로 살살 저은 후, 중간불보다 약하게 줄인 불에서 15분 정도 끓여 낸다.



축제의 밤, 그 빛나는 한복판에서

Chiang Mai & Sydney

치 앙 마 이 & 시 드 니

여행지에서 만나는 축제의 밤은 마법에 걸린 사공간이다. 낮에 이미 여러 번 거닐기도 하여 익숙했던 그곳은 이제 전혀 다른 얼굴로 여행자를 대한다. 축제는 스스럼없이 찬란한 빛을 내며 타오른다.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일상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야 하는 간절함으로.

에디터 민소연 사진 토크 이미지, 셔터스톡



이뽕 축제(Yi Peng Festival)라고도 불리는 치앙마이 리이 끄라통 축제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모여 '콤 리이'라는 풍등을 날린다. 이 풍등은 각자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하늘에 있는 신에게 다가간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유히 흐르던 거대한 메콩강은 풍요의 젖줄이었다. 이 강줄기를 생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해마다 강의 여신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끄라통'이라 하는 작은 배를 물에 띄내려 보내며 죄를 씻어내고 불운을 쫓고자 했다. 이 고대의 풍습은 지금까지 계승돼 태국에서는 가장 큰 축제로 이어진다. '리이 끄라통'은 태국의 2대 명절 중 하나로 태국력 12월 보름에 성대하게 치른다. 사람들은 바나나 잎으로 만든 조그마한 연꽃 모양의 작은 배(끄라통)에 불을 켜 초와 향, 꽃이나 동전 등을 실어 강물이나 호수에 띄워 보내며 소원을 빈다. 촛불이 꺼지지 않고 멀리 떠내려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수많은 끄라통들이 수면을 비추며 꽃처럼 흘러가는 장관을 만들어낸다. 리이 끄라통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대개 바나나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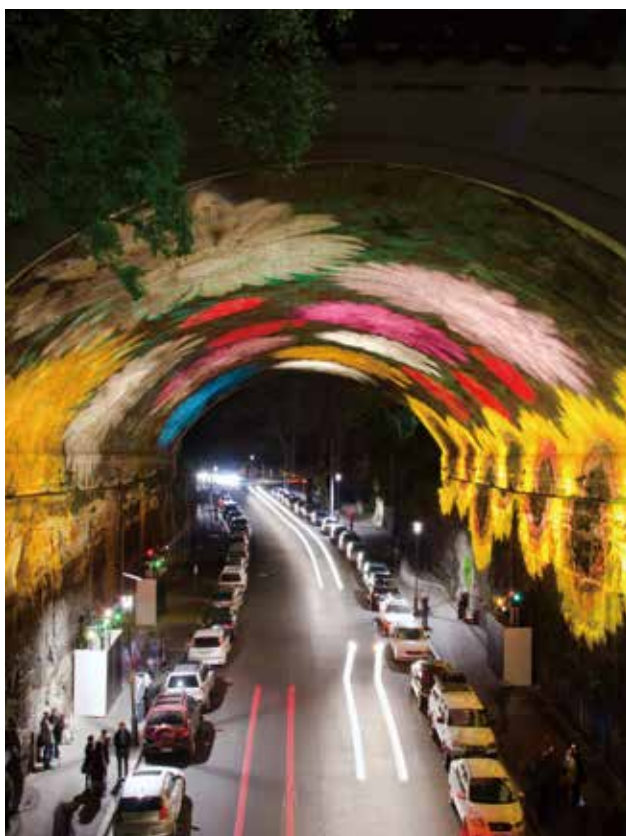
'Loi Krathong' is one of the two major holidays in Thailand that is held magnificently in mid-December based on the Thai calendar. The people would load small boats, which are made of banana leaves in the shape of small lotuses (Krathong), with lit candles, incense, flowers, and coins, and allow them to float on a river or lake as the people make wishes. The belief that their wishes would come true when the boats float far away with the candle lit creates a beautiful scene where countless Krathongs float like flowers that light up the surface of the water. Loi Krathong takes several forms in different regions. Most regions float Krathong made of banana leaves along the rivers; however, Chiang Mai is known for releasing floating lanterns into the sky. They launch the lanterns called 'Khome Loi' in order to make wishes upon the gods in the sky, as

로 만든 끄라통을 강에 띄우지만 치앙마이에서는 풍등을 만들어 하늘에 띄운다. '콤리이'라 부르는 이 풍등을 하늘에 있는 신에게 날리며 소원을 비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곳에는 슬픔과 액운이 묻힌다고 한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떠오르는 풍등은 치앙마이 거리 곳곳을, 사람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비춘다. 한편 딱(Tak) 지방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강둑에 모여 코코넛 껍질로 만든 수백 개의 끄라통을 띄우고 밤새 춤과 노래로 축제를 즐긴다. 낭만적인 달빛 아래 이국의 열기와 경건함이 뒤섞인다.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에서는 겨울인 5, 6월에 특별한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는 '빛과 음악, 아이디어'라는 테마로 시드니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이자 공연장이 되는 축제다. 도심 곳곳에는 다채로운 LED 조형물들이 설치되고 젊은 아티스트들의 감각이 깃든 빛들이 생동감 있게 넘쳐난다. 이때 시드니의 랜드마크

they believed that their sorrow and misfortune will be concealed where the lanterns fall. The lanterns light up the night sky as stars to beautifully brighten the streets of Chiang Mai and the faces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people of Tak gather by the river bank in order to float hundreds of Krathong made of coconut bark, as they enjoy dancing and singing all night. Australia has seasons that are exactly opposite to those of Korea, and the Australians celebrate a special winter festival in May and June. 'Vivid Sydney' is a festival of 'light, music, and ideas' that turns the entire city of Sydney into a massive art museum and concert hall. Various LED structures are installed throughout the city, and the lights that are designed by creative young artists liven up the whole area. The Opera House, which is the landmark



비비드 시드니'는 화려한 조명과 생생한 라이브 공연이 어우러지는 시드니 최대의 축제다. 항구와 도심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고, 거리의 곳곳에서 라이브 공연과 명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크인 오페라하우스는 그야말로 예술가들의 캔버스가 된다. 화려한 색감과 전위적이기까지 한 형태로 오페라하우스 위에 그려지는 '비비드 라이트(Vivid Light)'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이는 새로운 조명 기술을 선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시 안에서 빛이 어떠한 예술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공간을 얼마만큼 마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한다. 빛이 만드는 예술의 경지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함께 시드니 구석구석을 채운다. 음악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시드니 전역의 공연 공간이 축제와 연계되어 다채로운 음악 이벤트들로 여행자의 발을 이끈다. 오페라하우스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와 시드니에 어울리는 예술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의 예술적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진다. 아무리 차가운 바닷바람이 분다 해도 축제의 열기를 식힐 순 없다. 형형색색 황홀한 빛으로 물든 시드니의 겨울밤은, 모두가 사랑하는 호주의 태양만큼 특별하다. S

of Sydney, becomes a great canvas for the artists. The highlight of the festival is the 'vivid light' drawn on the Opera House in bright colors and slightly avant-garde forms. They do not cease at the presentation of the new lighting technology, but instead, they allow the guests to experience some kind of artistic power produced by the light and how much it can magically transform the spaces. The art of light fills every corner of Sydney with interesting stories. However, music should not be missed. The entire performing venues in Sydney are linked with the festival in order to attract visitors with various musical events. The Opera House conducts programs that will introduce the most popular musicians and artists in Australia for a more strengthened artistic infrastructure of the local communities. The cold oceanic winds cannot combat this heat. The winter nights painted with mesmerizingly colorful lights are as special as the sunshine in Australia that everyone loves.

탄탄하게 빛나고 활력으로 찬란하다

깊어진 노화로 힘을 잃어가는 피부. 이럴 땐 피부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삼의 강인한 생명력이 필요할 터.

이 가을 안티에이징에 촉각을 세우고, 탄탄하게 깨어나는 피부 활력을 경험해보자.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우상욱 작가의 금채 찻잔.
잔 외부는 유약으로 컬러를 내고,
잔 내부는 영국산 수금으로
삼벌 소성한 작품.

자음생 마스크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y Mask

50여 년간 인삼 연구로 인삼의 뿌리와 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낸 자음생크림의 노하우로 완성한 설화수의 또 다른 혁신 신제품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핵심 성분을 혁신적인 더블 랩핑 시트™(Double Wrapping Sheet™)에 담아 집중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 시트 마스크로써, 집중적인 보습, 탄력, 윤기, 투명도 개선에 도움을 준다. 혁신적인 이중 구조의 더블 랩핑 시트™(Double Wrapping sheet™)는 정교하게 감싸주는 바깥쪽 방막 시트와 핏이 다른 밀착력을 선사하는 미세 구조의 안쪽 시트가 빠르고 깊이 있는 피부 흡수를 도와주어 탄탄하고 우아하게 빛나는 피부는 물론 잘 묻어나지 않는 편안함까지 선사한다. 또 풍부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텍스처는 촉촉하면서도 끈적임 없는 매끄러운 마무리 감으로 산뜻한 보습 영양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 **How to Use** 일주일에 2회 에센스 사용 후 크림 단계에서 사용한다. 먼저 하단 마스크 시트의 필름을 벗겨내고 입 부위에 맞춰 부착한다. 그다음 상단 마스크 시트의 필름을 벗겨낸 후 윗부분(이마 부위)을 잡고 눈, 코, 이마 부위에 맞춰 부착한다. 얼굴에 고르게 밀착하고 20분 후 떼어내며, 남은 유액을 부드럽게 롤링해 피부에 두드려 흡수시킨다.

*사진 속 제품은 자음생마스크 1회분(상단 마스크 1매+하단 마스크 1매) 9월 출시



자 여 진 에 셴 스
Capsulized 1 Ginseng Fortifying Serum

인삼 헤리티지와 최신 캡슐 기술로 탄생한 진세니스피어™가 함유된 에센스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크로 진세니스피어™와 에센스에 녹아있는 마이크로
진세니스피어™가 담긴 캡슐 타입 에센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되는데, 자여진에센스는 깊어지는 주름을
케어하고 탄력을 키워 피부에 지속적인 변화를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기초 손질 후 적당량을 손바닥에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킨다.



천목유의 독특한 색과 금을
입혀 더욱 돋보이는 차 거름망.
우상욱 작가 작품.

자 음 생 크림 오 리 지 널 & 자 음 생 크림 라 이 트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Light

힘을 잃은 피부는 개인의 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인삼
연구를 통해 인삼 뿌리와 꽃에서 찾아낸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의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크림. 피부를 힘있게 가꿔주는
것은 물론 이미지 존의 탄력을 케어해 한층 우아하고 생기 있는 이미지로 가꿔준다.
딱 찬 영양이 풍부하게 느껴지는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부드럽고 산뜻한 질감의
자음생크림 라이트 등 두 가지 에디션으로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이미지 존이란? 반복되는 표정 습관과 탄력 저하로 발생하는 피부 노화를 인지하는
주요 피부 노화 인지 지점(마. 미간, 눈가, 팔자, 입 꼬리)을 연결한 부위로,
설화수가 제안하는 새로운 안티에이징 지표. **How to Use** 아침 저녁 크림 단계에서
적당량을 손바닥에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퍼 발라준다.



특유의 색감이 아름다운
금채 이중 높은 찻잔과 금채
찻잔. 우상욱 작가 작품.

자음생 아이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EX

탄탄하게 잡아주고 보호하는 더블 안티에이징 케어로 다양한 눈가 고민을 해결하여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내·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피로하고 연약해지는 눈가 피부에 '멜팅 엘라스틱 에멀전 텍스처'가 부드럽게 녹아들고, 롤링할수록 밀착되며 탄력 있게 마무리되어 힘 있는 리프팅 케어를 선사한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손질 시 에센스 사용 후 적당량을 취해 약지로 눈 밑, 눈두덩에 부드럽게 펴 발라준다.



수금의 화려함과 도자기의
멋이 잘 어우러진 금채 이중
찾진과 금잔. 우상욱 작가 작품.



인삼 안티에이징 환절기를 맞아 피부는 건조하고 예민해진다.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피부 노화가 진행되기 쉬운 이 시기에는 특히 안티에이징 케어에 신경을 써야 할 터. 눈에 띄는 피부 노화의 원인은 피부의 탄력 저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힘을 키워주는 안티에이징 케어를 눈여겨봐야 한다.

인삼에 대한 고집스러운 원칙을 지키며, 인삼 전체가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피부에 전하는 설화수의 인삼 연구인 진세노믹스™. 이를 통해 인삼 안티에이징의 가치를 품은 자음생 라인인 피부 노화에 해법을 제시한다. 설화수만의 인삼 헤리티지에 최첨단 피부 과학을 접목해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올 가을 설화수의 인삼 안티에이징으로 매끈하고 탄탄한 것은 물론 우아하게 빛나는 윤기 피부를 가꾸어보자. S

Ginseng Anti-aging Your skin can become dry and sensitive with the changing of the seasons. Since it can age faster than usual during this time of the year, you must pay extra attention to anti-aging care. The cause of visible skincare concerns is closely related to the loss of the resilience of the skin. This is why you must focus on anti-aging care that fortifies the skin. Ginsenomics™ is Sulwhasoo's study on the strict principles of ginseng to bring its powerful vitality directly to the skin.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Line with anti-aging properties suggests clear solutions to combat aging. Sulwhasoo's ginseng heritage is combined with advanced skincare science to rejuvenate the skin. This fall, keep your skin smooth and firm, as well as elegantly radiant with Sulwhasoo's ginseng anti-aging products.



BEAUTY FROM YOUR CULTURE
 설화수는 지난 11년간 설화문화전을 통해 전통문화 보전에 힘써왔다. 올해부터는 이를 글로벌 캠페인 'Beauty from Your Culture'로 확장하여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개 국에 동시에 론칭한다. 설화수가 지향하는 전통문화 계승의 가치를 전세계로 전파하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한 설화수의 'Beauty from Your Culture'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달래&박우혁이 디자인한
 리미티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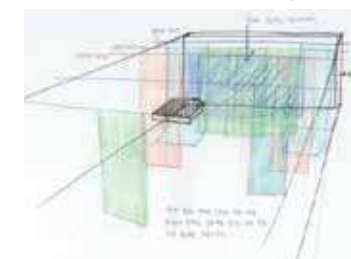
노재운 작가



정재훈 작가



이성미 작가



한상아 작가

<2017 설화문화전>
전시일정 2017. 09. 15 (금) ~ 2017. 10. 29 (일)
전시장소 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
 2. 도산공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2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8시 (평일 및 주말 동일) *추석 당일 (10/4) 및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정기휴무일 (10/9) 휴무
문의 번호 02-541-9270

11년 간 한국의 전통문화 알려온 설화수 문화메세나, <설화문화전>

<Sulwha Cultural Exhibition>, Sulwhasoo's cultural mecenat that has featured Korea's traditional culture for 11 years

200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설화수의 문화메세나 <설화문화전>이 9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와 도산공원에서 개최된다.

에디터 민소연

<설화문화전>은 2006년부터 이어진 설화수의 문화메세나 활동으로 올해 11번째를 맞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와 도산공원 두 곳에서 이원화된 공간 구성으로 펼쳐진다. 올해에는 아시아 문화권이라면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테마다.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천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한 이 전시는, 도산공원과 플래그십스토어 두 공간을 각각 지상과 천상으로 나누어 국내 아티스트들의 상상력으로 채운다. 이번 전시는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작가 11팀과 전통 장인이 함께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은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플래그십스토어 1층 입구에 설치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구혜자 선생의 작품인 '한복'은 설화 속 선녀의 날개 옷으로 상징되며, 천상과 이상을 잇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전시의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더불어, 설화수는 올해부터 설화문화전으로 이어온 전통문화 보존의 가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자,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개국에서 'Beauty from Your Culture'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을 맞이하여 설화문화전 참여 작가인 진달래&박우혁이 디자인한 리미티드 제품의 수익금은 한국에서 기존과 같이 전통 장인 후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각국에서는 문화 유산 보전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캠페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소식은 2017 설화문화전 웹사이트(<https://sulwhaculture2017.co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that has creatively merged the beauty of both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s has been Sulwhasoo's cultural mecenat activity since 2006, and is now in its 11th edition this year. This year, the theme is the tale of 'The Lumberjack and the Fairy,' which would be familiar to anyone in Asia. The exhibition interprets the story based on 'the desire for heavenly beauty,' with Dosan Park and the flagship store divided into earth and heaven, and filled with the imagination of local artists. It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11 teams of local artists and traditional craft masters. They will use different perspectives in telling the tale of 'The Lumberjack and the Fairy'. 'Hanbok' by Master Hye Ja Goo of Special Costumes, also known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89, will be installed by the entrance on the 1st floor of the flagship store, symbolizing the fairy's winged robe in the tale, and further enriching the story through the exhibition as a medium connecting heaven and the ideal. Moreover, Sulwhasoo begins with the 'Beauty from Your Culture' campaign in Korea, China, Singapore, and Malaysia to spread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s value of preserving traditional culture. In line with the campaign, you can purchase limited edition products designed by participating artists Dal Lae Jin and Woo Hyeok Park along with other art products. Proceeds from the sales will be used to promote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

빛나는 하루하루를 위한 설화수의 선택

인삼 에너지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다

설화수는 브랜드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원료, 시트, 텍스처 등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자음생마스크를 9월 새롭게 출시했다. 자음생마스크는 이중 구조의 혁신적인 더블 랩핑 시트™에 강력한 인삼 에너지가 담긴 크리미 텍스처를 풍부하게 담아낸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시트가 만나 탄생한 더블 랩핑 시트™는 안으로 는 핏이 다른 밀착력과 편안함을 전하며 촘촘하게 피부를 케어한다. 이와 동시에 밖으로는 피부를 꼼꼼히 감싸 텍스처의 피부 흡수를 도와주어 탄탄한 피부 탄력과 우아한 피부 윤기를 선사한다. 또한 이중 구조 덕분에 내용물이 손에 쉽게 묻어나지 않아 편하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농밀하고 풍부한 크리미 텍스처로 촉촉함은 물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을 제공한다. 자음생마스크는 설화수 50여 년 인삼 연구를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인 자음생크림의 핵심 인삼 성분을 풍부하게 담아내어 강화된 인삼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케어를 도와준다.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탄력을 포함해 윤기, 피부 투명도 등 전반적인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이미지 존 중 팔자 부위, 미간, 눈가 등을 케어해 탄탄하고 우아하게 빛나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자음생마스크 5매, 12만원대(9월 출시)



2017 <설화문화전>, 천상과 지상의 아름다운 이야기

설화수는 2009년부터 '설화문화전'이라는 타이틀로 문화 메세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중과 전통문화의 간극을 좁히고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누구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서, 올해로 열한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2017년의 <설화(說話): Once upon a time -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설화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천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 해석한 이번 전시는 도산공원과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라는 이원화된 두 공간을 각각 지상과 천상으로 개념화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강서경, 김명범, 김상균, 노재운, 이성미, 이용주, 이정훈, 정재훈, 진달래&박우혁, 한상아, 홍정욱)은 조각, 설치, 건축, 미디어,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설화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관람객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산공원과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로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雪花秀

Sulwhasoo

NEW



섬세하게 채운 촉촉한 커버, 결점 없이 매끈한 피부를 완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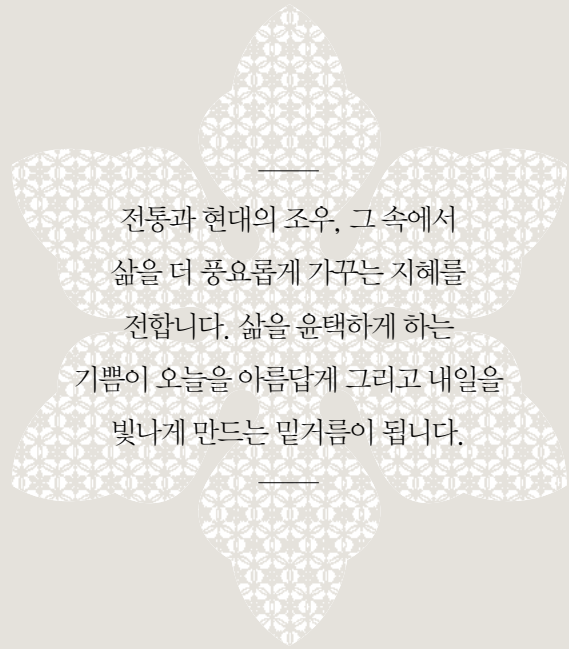
설화수 퍼펙팅쿠션

피부는 티 없이 매끈하면서도 은은한 수분감을 머금을 때 아름다워 보입니다
섬세한 커버력과 촉촉한 터치로 완벽한 피부를 표현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가볍고 촘촘하게 밀착되는 제형이 피부 결점을 깨끗하게 커버하고
설화수의 귀한 보습 성분이 피부를 감싸 촉촉한 윤기 피부로 가꿔줍니다
이제 부족함 없이 완벽한 피부를 위해 커버와 보습을 동시에 케어하세요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다
이
다



한 땀 한 땀, 장인 못지않은 이 마음

바느질 (sewing) 배우기

어쩌다 마음에 꼭 드는 패턴의 원단을 보면 당장 무언가 만들고 싶어진다.
 걸어만 두어도 화사할 앞치마도, 어느 때고 편하게 들고 다닐 예코백도 좋다. 요리조리 쓰임새와 모양을
 궁리하다 보면 이 예쁜 원단은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도움 주신 곳 움직이는 공방

어릴 적 살던 집 한구석에서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튼튼한 주물 다리와 페달을 가진 그 새까만 기계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술을 부렸다. 너무 길어 입지 못하는 바지의 기장을 똑 알맞게 줄이고, 음표 패치워크가 귀여운 피아노 가방도 똑딱 만들어냈다. 세월이 밀려 구닥다리가 되어버리고 끝내 어디론가 사라졌지만, 재봉틀이 내던 특유의 드르륵 소리와 반들한 윤기는 여전히 기억 속에 있다.

바느질 시작하기

DIY의 열풍으로 다양한 소품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손바느질이나 미싱 등 소잉(sewing) 역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분야다. 특히 재봉틀 바느질은 한 번 배워 익숙해지면 전문 기술로서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요즘에는 공방 창문의 아이템으로도 많이 쓰이는 추세다. 혼자 시작하기 망설여진다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방이나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보자. 두런두런 이야

기를 나누면서 바느질을 하고, 오밀조밀한 물건들을 만드는 재미에 힐링이 절로 따라온다. 스스로 완성하는 성취감도 꽤 크다.

바느질은 크게 손바느질과 재봉틀 바느질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세기 서양의 영향이 미치지 전까지 모두 바늘을 가지고 직접 꿰매는 손바느질을 해왔다. 흠질, 박음질, 시침질, 감침질 정도의 기본적인 손바느질로도 똑딱 소품이 만들어진다. 이중에서도 흠질은 가장 기초적인 바느질 방법으로 바늘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꿰매는 방법이다. 옷감의 폭을 잊거나 의복의 솔기에 널리 이용되며, 바늘땀의 간격이 고르고 옷감이 울지 않게 주의한다. 박음질은 솔기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바느질로 온박음질과 반박음질이 있다. 온박음질은 바늘땀을 뜬 만큼 되돌아가서 다음 땀을 뜨는 방법으로, 바늘땀이 일직선으로 계속 이어진다. 반박음질은 온박음질보다 성긴 것으로, 한 땀을 뜨고 2분의 1만 되돌아와서 뜨므로, 겉면에서는 흠질한 형태가 된다. 재봉틀 바느질은 박음질의 원리를 이용한 것. 이 두 가지 기본 방법만으로도 원하는 기초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배워본 에이프런 만들기에서 사



에이프런 만들기

준비물 원단 1마, 허리끈(90cm) 1개, 목 끈(80cm) 1개, 목 짧은 끈(20cm) 1개, 주머니 원단(35×20cm)

- 1 만들고자 하는 에이프런의 본으로 천을 재단한 후, 겨드랑이 곡선을 1cm씩 두 번 말아 바느질한다.
- 2 앞판 윗부분에 목 끈 고리를 끼워 넣고 안쪽으로 4cm씩 두 번 말아 바느질한다(짧은 끈은 입었을 때 왼쪽에 반으로 접어서, 긴 끈은 오른쪽에, 겹면 위에서 끈을 고정해 바느질한다).
- 3 옆선 양쪽에 허리끈을 끼워 넣고 안으로 1.5cm씩 두 번 말아 바느질한다. 아랫단은 2cm씩 안으로 두 번 말아 바느질한다.
- 4 주머니 윗부분은 1cm씩 안으로 두 번 말아 바느질한다. 주머니 옆선과 아랫선은 안으로 접어서 앞치마의 중앙 부분에 맞춘다. 이때 주머니는 각자 편한 손 높이에 위치를 정한다.
- 5 옆선과 아랫선은 앞치마 몸판과 함께 'c'자로 바느질한다. 주머니 중앙 세로선을 박아 두 칸으로 나뉘어 완성한다.

움직이는 공방 일상생활에서 패브릭이 주는 포근함같이 바느질과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한 공방. 손바느질과 재봉틀 클래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들고 배워볼 수 있다. 위치: 서울 마포구 연남로7길 32-8 1층 / 010-8633-0361 / blog.naver.com/beaver55



용된 방법 역시 대부분 박음질이다. 바느질은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 바늘과 실(재봉틀이 있다면 사용하고), 꺾매 거리(원단)가 있으면 준비 끝. 재봉틀은 손바느질의 수고스러움을 단번에 없애는 편리한 도구다. 처음 재봉틀을 사용한다면 기능이 단순한 것도 무방하다.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가격대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을 소거하면서 적절한 모델을 찾도록 한다. 요즘에는 재봉틀 생산 회사에 다양한 동영상으로 사용법 가이드를 제공하고, 유튜브 등에서도 디테일한 활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단춧구멍 노루발, 주름 노루발, 지퍼 노루발 등 재봉틀을 구입할 때 제공되는 다양한 노루발을 잘 챙겨 활용하면 옷 만들기가 무척 쉬워진다. 재봉틀용 바늘은 9호에서 16호까지 있는데 보통 옷감에는 11호, 그보다 얇을 때는 9호, 두꺼운 것은 14, 16호 정도를 쓴다. 손바느질 바늘은 반대로 호수가 작아질수록 굵고 길어지는데,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은 가늘고 짧은 켈링용 바늘이다. 실은 튼튼하고 보풀이 적은 100퍼센트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완성도 높다. 베이지나 남색 등 차분한 중간 색상이 원단에 튀지 않고 두루 잘 어울린다. 주된 재료가 되는 원단은

쓰임새에 맞게 고른다. 아이들이 사용한다면 형태 변형이 적고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소재, 감촉이 보드라운 거즈나 타월지 등을 선택한다. 에이프런과 같이 주방에서 쓰는 패브릭 소품은 세탁이 쉽고 코튼 원단에 방수 코팅이 된 것이 적당하다.

둘러보면 모든 게 최고의 재료

바느질은 리사이클링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가까워 서 두었다가 입을 때를 놓친 원피스나 유행이 지나버린 부츠컷 청바지, 아이가 자라서 작아진 옷들은 더없이 훌륭한 재료가 된다. 의류의 경우는 이미 바느질된 부분까지 활용하면 보다 쉽게 다른 용도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자수 장식이나 굉장히 화려한 프린트는 포인트 장식으로도 좋다. 바느질을 하면 평소 기회가 없어 실력 발휘를 못 하던 창조성이 어느새 총출동된다. 다양한 시도가 자유분방하게 펼쳐진다. 뽀뽀뽀 영성한 바느질이면 좀 어떤가? 나만의 개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에 깃든 애뜻한 정까지 담겨 있는데. S

섬섬옥수 위에서 빛나다 Shining on the beautiful hands of women

여인의 손은 그녀 자신을 은연중에,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다.
작고 가녀린 손은 활기찬 손짓으로 수줍은 열정을, 거칠고 주름진 손은 숙련된 솜씨로 원숙한 경험을 말한다.
그리고 여인의 반지는 이 모든 아름다운 손 위에서,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낸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KCDF, 노기령 작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반지들은 진주와 붉은색 보석을 박아 장식했다. 보석을 물고 있는 부분은 육각형 안에 여섯 개의 꽃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ㅅ'자 모양의 소슬 빗살무늬로 장식했다. 고리의 가운데에는 비스듬하게 교차시킨 빗살무늬를 넣고 양 끝은 파란색 법랑을 입혀 장식 효과를 더했다. 곳곳에 쓰인 섬세한 도금 장식은 화려함과 우아함을 더한다.

반지는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장신구라 할 수 있다. 그 흔적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조개껍데기로 만들어 꺾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활발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신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물들이 전해진다. 형태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 위아래가 꼭 같은 폭으로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부터 윗면 중앙부로 갈수록 볼록해지며 가는 금실이나 금 알갱이로 꽃문양을 장식한 것, 윗면 중앙에 꽃모양을 만들어 가운데 유리알을 박은 것 등 당시의 탁월한 세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한 짝만 끼는 것은 반지, 쌍으로 끼는 것은 가락지라 일컫는다. 가락지는 주로 기혼녀가 끼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조선시대 이후에는 가락지가 더욱 애용됐다. 신분에 따라 재료의 종류가 달라져 상류층에서는 옥이나 비취를, 서민층에서는 간결한 박쥐무늬가 새겨진 은이나 백동 등을 많이 썼다. 계절에 따라 재료를 다르게 쓰기도 했다. <사색복색자장요람四節服色資粧要覽>을 보면 겨울에는 금환金環을, 봄과 가을에는 파란 지환, 여름에는 옥·마노 지환을 끼었다고 한다. S

Rings that have been craf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re decorated with pearls and red gemstones. The part that holds the gemstone has ㅅ-shaped comb patterns, as there are six petals within the hexagon. The diagonally intersected comb patterns are added to the center with blue enamel on both ends as additional embellishments. The exquisite plating enhances the rings' sophisticated style and elegance.

There were single bands and rings worn in pairs. Rings in pairs were mostly worn by married women. Single bands were popular until the Age of the Three Empires; however, the rings worn in pairs were further enjoyed after the Joseon Dynasty.

The types of materials used varied according to social class. The higher class people preferred jade, while the commoners used silver or white bronze with simple bat patterns.

The materials that were used also varied according to season. In <Sasaekboksaeckjjangyoram> (a note written in Gungche font by Gyeongbin Gim, who was a concubine of the 24th King Heonjong, in her domicile at Sunhwagung Palace), Gyeongbin Gim wore gold rings during winter, blue rings during spring and fall, and jade and agate rings during summer.



<은제 반지>
지름 21mm, 조선시대



<플라워 반지>
23.18 x 22.53 x 30.12mm, 노기령



데이브 쿠퍼(Dave Cooper)의 카툰 시리즈 속 캐릭터 에디와 펄, 노튼. 나머지 고깔모자를 쓴 둘은 개리 베이스맨(Gary Baseman)의 아트 토이들.

변화하는 것들의 얼굴

비주얼 아티스트 소수영

‘정크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소수영 작가는 낡고 버려진 혹은 잊히고 있는 중인 물건이나 공간에 끌린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작가 소수영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스트리트 아트 스트이기도 하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경계가 없다. 때론 머릿속으로 구상한 2차원의 이미지를 입체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형태의 무언가로 등장한다. 사물과 동물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할, 괴물인지 요정인지 알 수 없지만 귀여움과 덩덤함을 동시에 가진 생명체.

“사물에게서 고유한 어떤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직접 써 보고 살아보고 관찰해서 저만이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죠. 작업을 할 때 많은 영감을 주고요. 건물의 경우엔 낡고 오래된 곳에서 더 많은 표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월이 쌓이고 사람들이 지나간 술한 흔적이 특정한 얼굴을 만들거든요. 요즘 새로 지은 건물이나 공간에선 그런 발견을 하기 힘들죠.”

그동안 소수영 작가는 많은 도시 재생, 스트리트 아트에 참여해왔다. 경기도미술관과 함께 노후 건물을 새롭게 꾸민 문화 재생 프로젝트, 지방 학교에 벽화를 그리는 스쿨 체인지업 프로젝트, 최근에는 동두천 시 보산역 일대의 그래피티 작업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았다. ‘DKNY’나 ‘올리브영’, ‘타임스퀘어’ 등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속성상 작업물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스트리트 아트를 하는 많은 이들이 그렇듯 이미 끝낸 작업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작업을 하는 중에 느껴지는 감정, 그 공간과의 소통이 의미 있죠. 순간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작업실 서가에는 SF 책들이 빼곡했다. 오래되고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 그녀의 취향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변해버린 과거와 변화할 미래, 변화에 대한 예술가 특유의 호기심, 몰두하는 힘이 엿보였다. 내놓은 애장품은 산 지 15년은 된 아트 토이였다. 각자의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들의 표정은 그 자체로 끝이 없을 스토리를 품고 있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엔 정말 많은 인형들을 수집했죠. 이 아이들은 무척 존경하는 만화가의 캐릭터들이 아트 토이로 나왔다는 걸 알고 바로 구입한 거예요. 미래를 성찰하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SF 소설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초월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든요. 놀라운 가르침을 주지요.” S



패션, 예술을 담고 닮다

'보그(Vogue)'라는 이름은 패션 잡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예민한 미감의 촉은 패션 산업뿐 아니라 동시대 전방위 문화 예술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보그>의 아카이브에 쌓여온 예술의 경지에 비견될 화보들을 전시로 만났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민은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재미는 화가의 독창성이 전부가 아니다. 캔버스 안에서 재현되는 당시의 생활상 역시 무척 흥미로우며 사료로서의 중요한 가치도 가진다. 이를테면 그림 속 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은.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패션 화보나 광고 사진 역시 훗날 어떤 의미를 획득하지 않을까? 상업적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 태생적 한계로 휘발될 수밖에 없어 미술관에서 보기는 힘들 테지만.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 전시는 125년의 역사를 가진 <보그>와 당대 최고의 사진가들이 협업해 찍은 패션 화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 사진들이 '고전'이자 '순수예술'이라 일컬어지는 명화들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는 점은 무척 재미있다.

<보그>는 1892년 아서 볼드윈 터너가 뉴욕의 엘리트층에게 주간의 문화 이슈를 소개하는 매체로 창간했다. 이를 콘데 나스트가 인수해 1910년 이후 해외 진출을 시도, 전 세계 22개국에서 출판되는 최고의 패션 잡지로 거듭났다. <보그>는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아트 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직접 고용해 그들의 재능을 매체

안에서 펼치게 했다.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전의 큐레이터인 <보그 스페인>의 테브라 미스는 125년간 전 세계 <보그>의 아카이브가 보관해온 작품 중 118개를 엄선했다.

특히 이번 한국 전시를 위해 스페인에서는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 40여 점과 <보그 코리아>의 작품 20점을 새롭게 추가해,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사진 전시로 거듭나게 할 전망이다. 그는 한국의 관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보그의 역사 속에 스며든 세계 미술사를 확인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세계 3대 패션 포토그래퍼로 알려진 어빙 펜, 파울로 로베르시, 피터 린드버그 등의 대가들이 베르메르나 카라바조, 르누아르, 고흐, 달리, 클림트와 같은 화가의 걸작을 새롭게 재해석한 결과다. 이 사진들로 우리는 스페인 황금기의 회화와 네덜란드의 초상화, 모네의 인상주의 풍경화를 거쳐 잭슨 폴록의 추상과 앤디 워홀의 팝아트까지 미술 사조의 흐름을 새로이 마주하게 된다.

"나는 모든 작업에 임할 때, 회화적인 느낌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



이번 전시는 '사진과 명화 이야기'라는 콘셉트로 사진의 대상이나 기술·구성 면에서 미술사의 여러 시대와 장르를 아우른다. 한편 회화에서 영감을 얻은 발렌티노와 빅토르 앤 롤프의 오트 쿠튀르 드레스를 직접 볼 수 있다.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은 패션 사진과 명화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한다. 교과서나 미술관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명화가, 렌즈라는 전혀 다른 도구를 든 포토그래퍼의 해석과 재창조로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진 이 사진들은 고전적인 회화의 속성을 여전히 품고 있다.

다.”라고 말한 팀 위커를 비롯하여 전시에 참여한 모든 포토그래퍼들은 화가들이 회화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장치, 설정, 기법 등을 사진에 반영하며 미술사의 여러 시대와 장르를 아우른다. 교과서에서 보았던 명화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리고 패션과 사진이라는 매질을 통과해 다시 탄생한다. 전통적인 회화로부터 파생된 이 독특한 결과물은 상업과 예술, 혹은 패션과 예술을 가름하는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전시는 크게 여섯 섹션으로 대표적인 미술 사조를 따라간다. 첫 번째는 초상화다. 초기 르네상스에서 시작해 바로크와 로코코를 거쳐 20세기 초반까지 미술의 역사와 함께한 초상화는 패션 사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어빙 펜은 2007년,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영화 〈엘리자베스〉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엘리자베스 1세의 16세기 초상화풍으로 그녀를 촬영했다. 완벽한 고증으로 재현된 화려한 복식과 함께 절대적이었던 여왕의 권위가 전면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 정물화로 반 고흐, 카라바조, 폴 세잔 등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사진들이다. 상징주의에 매료되어 만물이 가진 본질적인 퇴락과 덧없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과거의 시도가 사진으로서 회화의 특징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려는 작가들의 도전으로 변화한다.

세 번째 로코코 섹션은 파스텔 톤의 색감과 젊음, 중세 귀족의 문화나 사랑을 소재로 다루어 패션 사진의 정수를 볼 수 있게 이끈다. 베르사유 궁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우아하며 화려한 장면들은 〈보그〉라는 매체가 가진 상징성 역시 드러내고 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화한 풍경화의 기술과 구성,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사진가들의 작품을 모았다. 클림트나 보티첼리 등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재해석된다. 자연과 아름다운 모델, 패션의 어우러짐이 그림을 따라잡는다.

한편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아방가르드부터 팝아트에 이르는 20세기 예술의 급격한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마티스, 잭슨 폴록, 앤디 워홀과 같은 작가의 개성이 화보나 패션 그 자체에 넘실거린다.

마지막은 〈보그 코리아〉 스페셜 섹션으로 구성된다. 구본창, 홍장현, 보리 등 국내 대표 사진가들과 송혜교, 한혜진, 틸다 스윈튼 같은 톱모델이 함께한 〈보그 코리아〉의 화보들이 시선을 끈다.

〈보그 라이크 어 페인팅〉 전시는 2015년 여름, 스페인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마드리드의 티센-보르네미차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약 3개월간 38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이 미술관 역사상 최고로 흥행한 전시로 기록된 바 있다.

순수한 선과 우아한 이미지로 뉴욕 사진계의 거장으로 남은 어빙 펜, 세계 3대 패션 포토그래퍼 파울로 로베르시, 흑백으로 이뤄낸 극적 효과의 대가 피터 린드버그, 몽환적인 환상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팀 위커, 순수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닉 나이트, 스티브 잡스의 프로필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알버트 왓슨 등 세계 사진계를 이끄는 거장 32명의 매력적인 프린트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6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다. S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빛

은은한 조도로 집 안을 운치 있게 밝혀주는 것은 물론 소슬한 가을밤 아늑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조명의 특별한, 공간에 표정과 온기를 더하는 가을 조명 이야기.

에디터 윤연숙 사진 김민은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부로드 플로리아)



시간이 지날수록 다크섬유 표면에 녹이 자연스럽게 번지는 기법을 표현한 소반 조명은 김윤환 작가 작품으로 by KCDF갤러리숍.



어두운 컬러의 초와 공함이 잘 맞는 골드 컬러 촛대. 제기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금속 촛대는 모두 곽종범 작가 작품.



유려한 곡선의 파이프 라인과 빈티지한 느낌의 황동 전등갓이 포인트인 테이블 램프는 곽종범 작가 작품.

밤이 점점 깊어지고 집 안 곳곳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듯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조명은 집 안에 따스함과 활기를 불어넣는 오브제입니다. 가을밤 집 안을 밝혀줄 조명 하나면 따뜻한 분위기의 정겨운 공간으로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을 켜지 않아도 예쁜 조명은 있는 그대로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되어줍니다. 아무리 멋진 공간이라도 적절한 조명이 없으면 밋밋해지고, 평범한 공간도 조명의 힘을 빌리면 특별해집니다. 집 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거실에는 플로어 스탠드가 제격입니다. 가구와 잘 어울리는 소재와 컬러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서재나 침실에 두는 테이블 조명은 전등갓의 각도와 소재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이나 종이 소재의 전등갓은 부드러운 빛을, 메탈 소재는 빛이 주변으로 새지 않아 집중을 위한 빛을 내줍니다. 무드가 필요한 다이닝 공간에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펜던트 조명이 잘 어울립니다. 때론 촛대를 놓아 은은한 빛을 만들어도 좋고요.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강조해주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보여줍니다. S



전등갓을 변형하여 세 가지 디자인으로 활용 가능한 플로어 스탠드는 리참 by 모앤컬렉션



어느 장소든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단풍의 색을 닮은 룬드 펜던트는 구비 by 이노메샤



기능에 충실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관절 조명. 옐로 컬러의 데스크 램프는 앵글포이즈 by 리모드.



은행잎이 연상되는 머스터드 컬러가 경쾌하다. 매끄러운 곡선이 돋보이는 펜던트는 엔트레디션 by 이노메샤.



입으로 불어 만드는 유리 조명. 자연스러운 곡선의 조형미를 뽐내는 골드 컬러 유리 펜던트 조명은 엔트레디션 by 이노메샤.



수목지를 일일이 손으로 접어 만든 한지 조명. 옐로 컬러의 데스크 램프는 앵글포이즈 by 리모드.



카페 같은 집을 만들어줄 아이템. 핑크와 골드 컬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펜던트는 루이스폴센 by 챔터원



패브릭 소재의 주름진 전등갓이 은은한 빛으로 공간을 물들인다. 링클 플로어 램프는 리모드.



뉴질랜드 양털로 만들어 따듯한 느낌을 더해주는 램프 셰이드는 무스크하네 by 짐블랑.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울긋불긋 고운 빛깔의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 잘 익은 열매 등 가을을 담은 컬러로 연출하는 가을 분위기. 계절의 흐름과 설렘을 그대로 담아 가을 마중 나섭니다.

에디터 윤연숙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리아)



연못에서 발견한 다양한 느낌을 담았다. 연못을 주제로 직접 그린 그림을 프린팅한 실크 소재 스카프는 정순주 작가 작품.



한복 치마를 모티브로 한 카키색 앞치마에 조각보 무늬 포인트가 돋보인다. 석미나 작가 작품으로 by KCDF갤러리숍.



자연물을 모티브로 정은과 산호 소재로 만든 코릴 컬러 브로치는 김경희 작가 작품으로 by 사루비아정원.

따뜻한 커피와 향긋한 차가 생각나는 계절, 감미로운 음악에 귀 기울이고 한 장 두 장 책을 펼치게 되는 계절,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쾌청한 하늘까지, 간단한 다과를 챙겨 어디론가 피크닉을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을 떠올리는 생각들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여러 가지 가을 빛깔을 품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가을은 한창입니다. 톤다운된 오렌지, 베이지와 브라운, 진한 올리브와 카키, 빛 바랜 핑크와 버건디 컬러 등 차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의 컬러들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지요.

계절에 어울리는 컬러에 민감하다 보면 일부러 멋 부리지 않아도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채도와 명도가 낮은 파스텔컬러와 뉴트럴 컬러를 매치하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머스터드와 버건디, 퍼플 컬러 등 조금은 강렬한 컬러를 믹스하면 다채로운 가을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의 분위기를 담은 가을 컬러로 스타일링해봅시다. 내 안에 또 하나의 탐스러운 가을이 머물다 갑니다. S



스티치와 프린지 디테일이 사랑스럽다. 오피스 룩은 물론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긴소매 라운드넥 블레이저는 자라.



검지에 착용하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된다. 다양한 의상에 어울리는 카키색 반지는 유주얼엠이.



버클 장식을 조절하여 크로스백과 숄더백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버킷백은 다이애그널.



면과 마, 양단 소재를 이용해 조각 잇기로 주머니 형태를 완성한 백은 석미나 작가 작품으로 by KCDF갤러리숍.



오렌지 컬러와 우드가 결합된 정은, 산호, 나무 소재의 목걸이는 김경희 작가 작품으로 by 사루비아정원.



톤다운된 핑크 컬러가 차별한 가을을 연상시킨다. 자연스러운 라인의 머메이드 레이스 스커트는 다이애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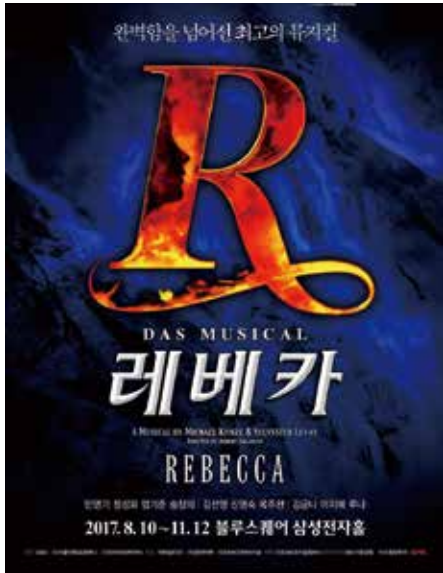
가을 컬러를 담은 아크릴 피스의 조합이 아름답다. 1.5배 더 예뻐 보일 언밸런스 귀걸이는 1064스튜디오.



앤티크한 프레임과 부드러운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열대어를 담은 머스터드 컬러 지갑은 유르트 스튜디오.



전통 매듭을 응용해 만들었지만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방울 매듭 팔찌는 조은희 작가 작품.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레베카〉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명작의 귀환 〈레베카〉

2013년 초연 당시 원작자인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로부터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뮤지컬 〈레베카〉가 돌아온다.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다시 한번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엘리자벳〉, 〈모차르트〉, 〈마리 앙투아네트〉 등 뮤지컬 작품으로 국내 관객에게 잘 알려진 극작가 미하엘 쿤체와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작품 〈레베카〉. 거장 히치콕의 동명 영화를 모티브로 제작한 뮤지컬 〈레베카〉는 사그로 숨진 전 부인 ‘레베카’의 기억을 안고 사는 영국 상류층 신사 ‘막심’과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덴버스 부인’, 그리고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키려고 덴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0)’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막심 역은 민영기, 정성화, 엄기준, 송창의가 맡았고 여행 중 우연히 막심과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나(0) 역은 김금나, 이지혜, 루나가 캐스팅됐다.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덴버스 부인 역은 김선영, 신영숙, 옥주현이 열연한다.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 등으로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레베카〉는 완벽함을 넘어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11월 12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1577-6478



드라마 발레의 대표, 유니버설발레단 〈오네긴〉

극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 우아한 몸짓으로 다시 태어났다. 발레극 〈오네긴〉은 어긋난 사랑과 뒤틀린 운명 그리고 안타까운 이별을 인물 간의 극적인 심리 변화와 함께 깊이 있게 그려낸 드라마 발레의 대표작이다.

2009년, 2011년, 2013년 객석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며 ‘다시 보고 싶은 명작’으로 손꼽히는 드라마 발레 〈오네긴〉이 2013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2009년 유니버설발레단이 한국 발레단 최초로 공연권을 획득해 선보인 〈오네긴〉은 차이콥스키의 극적인 음악과 존 크랑코의 천재적인 안무가 이상적으로 배합된 수작으로 일컬어진다. 국내 관객이 선호하는 〈지젤〉, 〈백조의 호수〉와 같은 낭만 발레, 클래식 발레를 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오네긴〉과 같은 드라마 발레는 국내 단체가 흔하게 무대에 올리는 레퍼토리가 아니다. 특히 〈오네긴〉은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존 크랑코 재단’이 세계적 반열에 오른 단체에게만 공연 권한을 주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큰 작품이다. 잊갈린 사랑에 의한 심리 변화를 대조적인 상황과 아름다운 2인 무로 로맨틱하게 표현한 〈오네긴〉은 한층 성숙한 유니버설발레단 무용수들의 연기력과 오케스트라 라이브, 웅장한 무대로 가을밤 더욱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길 것이다. 일시 11월 24~26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70-7124-1737

뮤지컬 〈벤허〉



영화로 친숙한 뮤지컬 〈벤허〉는 유다 벤허의 삶을 통해 고난과 역경, 사랑과 헌신 등 숭고한 휴먼 스토리를 담은 창작 뮤지컬이다. 배우 유준상, 뮤지컬 스타 박은테, 카이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며 2017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일시 ~10월 29일까지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544-1555

연극 〈라빠르트망〉



방상 카셀, 모니카 벨루치가 주연했던 영화 〈라빠르망〉을 세계 최초 연극으로 리메이크한 〈라빠르트망〉은 고선웅이 연출하고 LG아트센터와 극공작소 미방진이 공동 제작했다. 배우 오지호, 발레리나 김주원 등이 주연을 맡아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일시 10월 18일~11월 5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콘서트 〈바우터 하멜 '아모리(AMAURY)' 라이브〉



비단결 목소리(Mr. Silky Voice)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재즈팝 뮤지션 바우터 하멜이 내한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새 앨범 〈아모리(AMAURY)〉 발매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멜로디에 부드러운 감성이 더해진 신곡과 히트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9월 22일 장소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문의 02-563-0595

책 〈무늬(MOONI)〉



평생을 무늬 디자이너로 살아온 장응복의 패턴 디자인 북. 한국 전통 문양과 자연을 소재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는 패턴 디자이너이자 공간 디자이너인 저자가 일상에서 얻은 영감을 패턴으로 만들어내고, 하나의 패턴을 수많은 변형으로 발전시켜가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지은이 장응복 출판사 그루비주얼

전시 〈무인 원화전〉



무인의 원작자 토베 안손이 그린 원화들과 핀란드의 무인 저작권사가 소장해온 미공개 작품들이 전시된다. 작품 외에도 영상 등의 볼거리를 통해 ‘무인’으로 표현된 토베 안손의 예술관과 인생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시 9월 2일~11월 26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기람디자인미술관 문의 02-837-6611

전시 〈그림의 미술사에서 특별전〉



네덜란드 판화가이자 드로잉 화가,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의 예술 세계를 조망하는 작품 130점을 공개한다. 반복되는 패턴과 기하학적인 무늬를 수학적으로 변환시킨 에셔의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일시 ~10월 15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문의 02-784-2117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공중비누
홍삼진액의 항산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숙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산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롤링되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없애고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충실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인 마스크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펴 발리고 말끔히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충실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자신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꿔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스페셜 라인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강하게 윤기 보호를 향상하는 스킨케어 파우더
80ml | 90,000원대

소선보크림 (TFF 40 / SPF 30 / PA++)
빛과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크림&패치
50ml | 15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인기 팔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탄력넥크림
자신체™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어 주는 안티에이징 넥크림
60ml | 80,000원대

명인본초앰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을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앰플
8ml x 4 | 2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스크림젤
백상 피우다가 포함된 젤 포뮬러가 얇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스크림 젤
100ml | 55,000원대

자정수
자진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 주는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아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쿨링 자막 어블라게이트와 시원한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폴루션 미백 스크림
40ml | 75,000원대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를 조밀하게 가꾸어주는 초기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130,000원대

여민마스크
짙은 열매 발효 성분이 피부를 단단히 여며주는 안티에이징 마스크
5매 | 40,000원대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밀어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캡슐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자음생진분유
인삼 종자유가 빠르게 흡수되어 극심한 피부 건조를 해소하는 고농축 에센스 오일
20ml | 12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크림 오리지널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신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핵심 성분과 혁신적인 더블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수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평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유크림
시원한 자자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유선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바디 & 헤어

동백윤모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보습 밤
100ml | 35,000원대

에센셜밤
홍화씨 고농축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나게 가꾸어주는 멀티 보습 밤
15g | 40,000원대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 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수
적응 성분이 즉각 흡수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진설유액
적응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앰플
125ml | 120,000원대

진설에센스
적응의 생령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방어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응 성분과 글루타미네이커 마시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달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적응 속이와 생령력으로 한결 같은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진설클렌징폼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계층력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20ml | 65,000원대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력사리 토달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설안팩
목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팩
80ml | 85,000원대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옥용팩
목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요트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청운수딩팩
즉각적인 청량감을 제공하여 피부 진정 효과를 주는 청매실 성분 함유 수딩 팩
80ml | 42,000원대

에올마사지크림
자진 피부에 영양과 활력을 제공하여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켜 주는 마사지 크림
180ml | 75,000원대

리프레시클렌징폼
찬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럼 경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본운에센스
주름, 탄력, 칙칙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본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본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MEN

릴렉스UV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가볍고 미세한 커버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15g 30,000원대)

쿠션

- No.11 푸슬렌(핑크)
- No.15 아이(브라)핑크
- No.17 아이(브라)베이지
- No.21 내츄럴(핑크)
- No.23 내츄럴(베이지)
- No.25 샌드(핑크)
- No.27 샌드(베이지)
- No.31 허니(핑크)
- No.33 허니(베이지)
- No.37 엠버(베이지)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연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젊고 건강한 동인 빛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
15g x 2 | 85,000원대

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볼륨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
8g | 40,000원대

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섹팅 되어 몽글 몽글한 듯한 신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피니시 파우더
8g | 65,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SPF 25 / PA+) 유 · 수분, 피부 힘 · 탄력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서
35ml | 60,000원대

CC
(SPF 34 / PA++) 매끈한 도자기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채담 스무딩파운데이션 (SPF 25 / PA++)
가볍고 부드러운 도모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채담 스무딩팩트 (SPF 25 / PA++)
자연스러운 화사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팩트
10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BB
30ml | 60,000원대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에서 파운데이션 (리퀴드)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에서 스킨커버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트윈케이크 (SPF 30 / PA+++)
답답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1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진설 윤에이크림
3가지 빛깔의 보색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진설 윤팩트
영원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엔실러 스틱
1층 미디엄 핑크, 2층 미디엄 베이지
5g | 40,000원대

레이디스 블러셔
1층 핑크 하모니, 2층 코랄 하모니
10g | 60,000원대

에센셜 립세럼 스틱
고보습 보충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꿔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설화수 자음생마스크(4명)

이중 구조의 혁신적인 더블 랩핑 시트™가 강력한 인삼 에너지를 전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이 시트 마스크입니다. 탄탄한 피부 탄력과 우아한 피부 윤기를 선사합니다.



뮤지컬 <레베카>(3명)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진 뮤지컬 <레베카>의 관람권을 3명*인 2매에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7년 10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레베카> 관람권
- 당첨자 발표 11/12월호 독자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7년 7/8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설인팩(5명)

- 김구범 경기 성남시 분당구
- 김미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 김윤순 울산 동구 전해동
- 이해진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정향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뮤지컬 <시라노>(3명)

- 류동현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송경숙 서울 관악구 성현로
- 황보연 서울 마포구 새창로

2017년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



인삼의 생명력을 담아낸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움 그대로를 담아낸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안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봉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	---	---	---	---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품격 있는 삶(8p)

피부 섬기기(12p)

新 장인을 만나다(16p)

공간미감(22p)

건너다(28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2. 누리다

설화인(36p)

어우러지다(44p)

설화풍경(50p)

설화보감(54p)

아름다운 기행(60p)

설화수를 말하다(66p)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한국의 멋(82p)

설화에장(84p)

읽다(86p)

집 안 단장(90p)

몸 단장(92p)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뮤지컬 <레베카>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